【一】 第六千二百十八號 (昭和七年十一月三十日 第三種郵便物認可)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十三年六月二日(木曜日) (第二版) (日刊)

朝鮮日報

夕刊 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雜誌『朝光』 同『女性』 同『少年』

四時常備之補藥 령진환 朝鮮製藥株式會社

寧陵·揚家店占領

無敵空軍과協力하야 蘭封以西로大進擊

【寧陵一日發同盟】一擧에 隴海線의 要衝寧陵을 略취한 我○○部隊는 西方으로 躍進三十一日早朝에 마처내 敗敵을 擊破하고 寧陵을 完全히 占據한後 다시 敗敵을 追擊하야 睢縣에肉迫하엿다

【○○三十一日發同盟】蒙城으로부터 前進을開始한 ○○部隊○先遣部隊는 二十七日午後一時揚家店(蒙城南方約十二키로)을 占領하엿다 이戰鬪에잇서 揚家店을死守하든 敵二千五百은 頑强히抵抗을試하엿스나 其半數가 擊滅되어 南方으로 潰走하엿다

【北京三十一日發同盟】徐州會戰에 參加한 勇猛果敢한 皇軍各部隊는 敗敵을 追擊하야 到處에서 殲滅戰을 行하면서 隴海線蘭封地區를 漸次西方으로 敵을 制壓하고잇는바 地上部隊의活躍에呼應하야 我無敵空軍은敵을 徹底하게 擊破하야 大痛擊을주고잇다 一方地上에서는 戰車部隊가 大奮戰하야 敵을 擊退하는等 全軍의士氣는 益益軒昂하야 蘭封以西의 敵을目標하고 大進擊을 續行中인데 最近의戰況은 左와如하다

一、歸德을 通過한我○○部隊는 三十日午前九時 寧陵을 突破하고 敗敵을 急追中이다
二、橫山、森本兩部隊는 三十日朝 睢陽城內에 肉迫하야 午前九時同城을 占領하고 殘敵을掃蕩中이다
三、山瀨部隊는 二十九日午後五時蘭封附近의 我軍과 對峙한正面의 敵銃砲隊에 對하야 또中蘭部隊는 同日午前十時開封西部에 各其强擊하야 多大한損害를주엇다
四、二十七日我○○部隊는 歸德東南方三十키로附近에서 約一萬五千의敵과遭遇 終日激戰한後 이를擊退한一方 翌二十八日午後四時頃에는 歸德西南方으로부터 南下한 約一個師의敵을擊退하야 大打擊을주어 敗走케하엿다
五、戰車隊는 二十一日山陵庄(朝陽集東方五十키로)附近에서 匪賊六百과 交戰하야 이를 擊退하엿다 敵遺棄死體는 七十五 我鹵獲品은 速射砲三、機關銃一、체코製自動小銃二十六이엿다

廣東空襲에對한

非戰鬪員의被害는 防空砲火의所以

外務省情報部長談發表

【東京電話同盟】最近連日에亘한我空軍의 廣東軍事施設爆擊에對하야 支那側은 例에 依하야 誇大한 데마宣傳으로 我空爆이都市及 非戰鬪員에 損害를주엇다고 誹謗宣傳에 努力하고잇는바右에 關하야外務省은 一日正午 左와 如한情報部長談을 發表하야 事實의眞相을中外에 闡明하는同時에 支那側의宣傳을 徹底的으로 反擊하엿다

廣東爆擊에關한 情報部長談

連日에 亘하야 廣東市內外軍事的 施設에 對하야 行한 我海軍航空部隊의 爆擊은 軍需品補給의 最大重要據點으로 化한 廣東의軍事的活動에 致命的打擊을 주고저함에잇는바로 砲臺飛行場及直接的軍事施設은 勿論飛行組立工場及軍需關係工場에 對하야도 支那의 抗戰能力의根源에 徹底的損害를 주려고한만큼 이것이 支那에對한 衝動이 甚大하엿슬것은 當然하다 그리고 日本飛行機의 攻擊目標가嚴然히 軍事的性質을 가진것에限한것은 말할것도업다 支那當局이 日本空軍의 爆擊을두려워하야 軍事的諸施設을 都市의住宅區域에 分散하고 第三國權益近傍에選定하야 我空爆을 回避하려고 企圖한바 日本側은 이奸計를 察知하고 어디까지던지 純然한 非軍事諸施設에 對하야는 深甚한注意를하고잇는것은 正確無比로써 定評이잇는 我海空軍將士의 手腕에信賴하야 틀림이업는바이다 萬若事實非戰鬪員에 損傷이잇섯다고하면 그것은決코 爆彈의被害가아니오 上海에서의 米國軍艦어거스타號와가티 支那側의 高角砲彈 濫射의結果、砲彈破片이 廣東都市上을더퍼 그結果破片이 住民區域에 意外의 被害를준것으로써 廣東市民은支那側의 前記詭計때문에 도리어 그防禦砲火로因하야 莫大한損害를 입게된것이다 支那側은 昨年廣東爆擊의 데마宣傳이 公平한 第三國人目擊者의 談話에依하야 粉碎된 事實이잇는데 다시금 非戰鬪員의 損害를誇大히宣傳하야 無差別的으로 空爆을 泣訴하는 常套手段을 取하고잇는바 公平한第三國人은 支那의 데마인것을 容易히看破할수잇슬것이다

僞遊擊隊續出 蔣禁止를布告

【上海三十一日發同盟】支那遊擊隊의蠢動은 我徐州攻略을牽制하기爲하야 三月以來特히 活潑한데 其遊擊隊中에는 救國을藉口하고 實은掠奪暴行을 恣行하는 僞似遊擊隊가 續出하므로 蔣介石은 其彈壓에 失敗한結果 一方에잇서서는 遊擊戰術을 極力獎勵하면서 他方이를 抑壓하지 안흘수업는 디렘마에陷하엿스므로 各省市軍政長官에게 左와如한僞似遊擊隊禁止令을 發한것이 判明되여 支那遊擊隊가 如何히 卑屈性을 帶하고잇는가를 推知하기에足하다

各地의奸民遊擊隊의名義를僞借하야衆을憑하고橫行 秩序를 紊亂하게하야 治安을 妨害하는여러가지弊害는 枚擧不遑하다 이들은 敵을보기도前에 自亂하는것이다 特히 全國民抗日의本意를 失하는바인 正히各市政長官各主任、主席等은 如斯한僞似遊擊隊를 一律로 取消하되 遲疑逡巡함을 不得하는바 軍警은 맛당히 이를嚴飭하야 遊擊隊의 名目을 藉하야써 破壞를 策하려하는組織을禁止하라

惶悚하옵신吩咐 全職員에게傳達

【北京三十一日發同盟】大元帥陛下께옵서는 徐州大勝을 嘉하옵시사 去二十五日兩幕僚長으로下를 召하옵시고 皇軍將士에게優渥하옵신 吩咐를 賜하옵신바 北支軍司令部에서는 三十一日寺內最高指揮官으로부터 職員全員에對하야 右吩咐를 傳達한바 全員感激하야 一層忠誠을 誓約하엿다

厦門島高崎海岸에서對岸集美를砲擊하는丸山砲隊

樞府本會議

【東京電話同盟】一日樞密院本會議는 午前十時부터 宮中東溜間에서 天皇陛下親臨下에開會、平沼、原正副議長各顧問官 村上書記官長 政府側에서宇垣外相、池田藏相、永井遞相外各閣僚、船田法制局長官其他關係者列席 一、日本國、北米合衆國間小包郵便約定締結의 件을 上議하고 村上書記官長으로 부터 審査報告가 잇슨後 採決한結果 原案대로可決 天皇陛下入御하옵신後 同二十五分 散會하엿다

官幣大社 關東神宮創立

【東京電話同盟】關東州旅順市에 關東神宮(祭神天照大神、明治天皇)을創立하고 社格을官幣大社에 列케하라는旨의 吩咐가게서 一日內閣告示로 發表되엿다

時事解說

通商協定一束

世界情勢는 점점 複雜化하야 世界經濟의 今後에對해 全혀豫測을 내리기어려워 얼마前에는世界經濟回復을爲한 世界經濟會議說까지도 擡頭하게되엿거니와 이러한 國際的諸關係속에서는 優先列强은 各其經濟的 實利結成에 努力할은 勿論 [illegible] 하야 [illegible] 中이다 [illegible] 協定이 [illegible] 六月까지에는 協定이 成立될것으로 豫測되고 잇는것들은 [illegible] 各國의 어方面의 努力은 相當한바가잇다。 그中의 一二를記錄하면

一、新獨白經濟協定=獨逸政府는 獨墺合邦에 伴하야 從來의 墺太利、白耳義、룩셈부륵國間의 經濟協定에 代하야 [illegible]

二、[illegible] 九日부터 [illegible] 新通商協定에 [illegible] 하엿다。

三、米國과 [illegible]=本國政府는 [illegible] 通商條約締結에 關해 交涉中이엇는데 [illegible] 協定締結까지의 [illegible] 로 [illegible] 調印을豫定이라고 [illegible] 한다。

四、日伊民間會議=經濟關係의 日、伊民間會商은 十二日부터 [illegible] 中心으로 [illegible] 月七、八日에는 [illegible]

五、滿伊協定折衝=滿伊兩國의 通商航海條約締結은 [illegible]

政友會總裁問題

即決延期兩論으로完全分裂!

第二次代行委員會注目

(寫眞 上鳩山氏 下 中島氏)

【東京電話同盟】總裁問題에關한 政友會 第二次緊急代行委員會는 一日午後 芝三緣亭에서 開會될터인바 去廿八日의 第一次代行委員會에서 代行委員間의意見이 即決과延期의兩論으로 完全히分裂을보게된것은 今後의總裁問題의動向을決定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即鳩山氏는 顧問會議、支部長會議에서도 其意向을表明한바와가티 此際速히總裁를決定하되 代行委員의 意見의一致를 보지못하게되는境遇에는 即刻總裁問題의決定을 黨規의適法機關으로옴겨서 其結果 黨則의命하는바에依하야 公選을執行하는것도 또한不得已하다는 純理的態度를持하고此에對하야는松野鶴平氏를바러 島田代行委員도 可及的公選을避하려는意向이나 이機會에 總裁를決定할것이라는點에잇서 鳩山氏에追隨하는 態度를 取하고잇다 여에對하야 前田、中島兩氏는『今日은 總裁를決定할 適當한時機가아니다』라는立場에서 即決方針의實現을 避하려는 意向을 明示하고잇다 그結果 總裁問題에關한 代行委員會는 今後 如何히 協議를 거듭한대도 兩極으로 갈리진 意見이 歸一하게될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豫想에 서게되엿스므로 一日의 會合은 總裁를 決定한다는 意味에서의 具體的結實을어들수업슴은勿論 境遇에따러서는 當日의 會合으로써 代行委員에依한 總裁問題의 協議는 決裂에 瀕하지나안는가고豫想된다 如何든 總裁問題에關한 現在의 膠着狀態가 急速히 展開되리라고는생각되지안는다

獨政府今回엔

對支武器禁輸斷行?

【伯林三十一日發同盟】獨逸政府는압서 防共의立場에서 蔣介石政權의獨逸人軍事顧問撤歸命令을 發하엿는데 三十一日伯林消息通의情報에依하면 獨逸政府는 다시對支武器輸出禁止를決定하엿다고한다 從來는 對支武器借款의關係도잇고 또는 小貿易商의利害도 考慮하야 對支武器輸出取扱에 徹底치못하엿슴은 憾이엇섯고 또英國商人의 손을거처 支那로 輸出하는길도잇섯는바 리벤트로프外相은 去二月廿日 히틀러總統의 聲明에 基하야 今回마침내 對支武器禁輸를 決意하지 안헛나고 觀測된다

遷都問題로 國民政府焦燥

確實한 方面에서 達한報道에 依하면 徐州、歸德、蘭封 隴海線의要衝을旬日에攻略되여 國民政府第二의 首都漢口도 [illegible] 으로 [illegible] 漢口政府가 [illegible] 하게되면 [illegible] 省內에 [illegible] 政權의 沒落에 [illegible] 다는理由로 마처나 [illegible] 的으로 反對意思를 表示하고 國民政府部內에도 假令 四川、雲南兩省民의 反對를 抑制하고 兩地中 何處로 政府를 移轉시킨다 해도 重慶의 遷都는 英國의 援助를 期待하기에 好適地가 아니오 또 昆明은 蘇聯의 援助를 밧기에 地勢上 絶對不可能하므로 各種異論이 沸騰하고잇다 結局 何處로 遷都된다하드라도 從來와如히 英蘇兩國의 協同援助는 바랄수 업고 遷都와 함께 國民政府의 抗日戰力은 益益低下하야 事實上 沒落의 運命은 免치 못하리라고 觀測된다

獨취關係依然緊急

취코國內는宛然戰時警戒狀態

到處에堡壘構築

【伯林卅一日發同盟】獨逸DNB通信社가 卅一日 프라하市로부터의報道라하야 傳하는바에依하면 獨취兩國緊迫關係의緩和는 表面的이오 취코國內에는 依然히警戒가嚴重을極하야 戰時狀態를呈하고잇다고한다 그報道要旨는 左와如하다

프라하市를隔하기 廿五哩가량의地點에서는 어느듯戰爭地帶의觀이잇다 國境에이르는沿道는嚴重한 防備施設이 되여잇스며 自動車는 到處에서 취코憲兵隊에 依하야 停車의命令을맛고잇는 狀態다 機銃이무서운 머리를 내밀고잇고橋梁이란橋梁은 모두 破壞되여防備用鐵條網障碍物以外에 高射砲及堡壘가沿道到處에 構築되여잇다

獨逸機越境에 취코政府再抗議

【伯林三十一日發同盟】駐獨취코公使 스마트니氏는 三十一日 獨逸外務省을 訪問하고 二十七日 抗議以後 더욱頻發하는 獨逸軍用機의 越境事件에關하야 거듭 獨逸政府에 抗議하엿다

食料不足으로 蘇聯에暴動頻發

莫斯科로부터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歡露에 駐屯한 赤軍部內에는 頻繁히暴動이 勃發하야 當局을괴롭게하는바 遠般白露軍管區內의 反亂事件과가튼은 가장重大한것으로 그것이 鎭壓되자말자 今番에는 키엡흐駐屯 野砲兵第二十五聯隊에도 暴動이發生하야 一時는聯隊本部까지占領될것까지 騷動을이르켜게되여 急遽出動한 게·페·우部隊와交戰한後 겨우鎭壓되엿다 暴動의原因은 最近食料의供給이 걸핏하면 不足되는우에 그品質이粗惡하다고 憤慨한結果인데 暴動勃發數日前에 腐敗한 食料를먹게하기때문에 多數의 中毒患者를내이게된것이直接動機가된것이다

關稅改正承認은

維新政府承認과同一

【上海三十一日發同盟】維新政府의 支那海關接收에 對하야 全般的關稅의 引下를 斷行한것은 駐支第三國、官憲에게 多大한衝動을 與하엿다 即 海關在任一部의 急進分子는 維新政府가 上海海關을 接收한當時와 同樣으로 維新政府의 命令을拒否하고六月一日以降에도 依然 舊稅率에 依하야 徵稅할것이라고 主張하는者도 잇스나 今回의 關稅改正은 特定業者 又는 其他特殊國에 怨恨的인것이 아니오 어떤나라의 物件이나 一齊히 關稅引下를 獨來하는것으로 第三國業者는 모두舊稅率徵收에 反對하고 今次維新政府의 命令에基하야 新稅率의適用을 바라는模樣이다 그리고各國의對支通商促進을目的하고 上海에駐在하는 領事團도 여境遇에勿論 各國貿易業者의 權益을尊重한다는 立場에서 新稅率을 適用함에는 正面으로부터 反對할것은 明白하므로 여것이漢口政府에對하야는 向背하는일이지만은 各國은모두 支那에對하야 最惠國條約을 가지고잇는까닭에 一國에關稅引下의 恩惠를 享有할境遇에는 이와同一한權益을享受한다는것은法律的根據가잇는것이라하고잇는데 이것이 果然維新政府와의 外交的聯繫을 構成하는것이냐아니냐에 對하야는 緘口하고잇는바 實際的으로는 維新政府를事實上承認하는것이됨은 分明하므로 今回의關稅改正은 經濟的으로뿐만아니라政治的으로도 中支明朗化에一段의 拍車를加하는것으로 觀測된다

銘酒 菊松 キクマツ

關稅改正에伴해

日本側密輸取締協力

總領事館令公布

【天津三十一日發同盟】臨時、維新兩政黨의 關稅率改正에 伴하야 日本側으로서도 密輸取締에 對하야 兩政府와 協力하기爲하야 北京、天津、濟南、青島各領事舘은 六月一日附總領事舘令으로써 密輸取締規則을 公布하엿다 特히 天津總領事舘은 當局談을 發表하야 日本人으로 不正業에 從事할境遇에는 斷乎右規則이命하는 最大限度의罰則을 適用할 뿐아니라 在留禁止處分도 併用할決意가잇다는旨를明白히하엿다

그라놀스空襲

【바르셀로나三十一日發同盟】프랑코軍空軍은 三十一日午前바르셀로나西南二百哩의 小邑그라놀스市를 空襲하야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右空襲에 依하야 市民中에는 死傷者約百名을 내엿다고한다

三國防共協定에 波蘭도參加?

【羅馬三十一日發同盟】新任駐伊波蘭大使뵈가스조프시키氏는 來三日 羅馬에到着할豫定인데 이를 機會로 波蘭의防共協定參加가 實現되지안흘가하는 觀測이有力하다 政界消息通間에서는 同大使는信任狀捧呈後 即時무소리니首相과會見하고 日獨伊防共協定參加意志表示를 行하리라고觀測되는데 新大使着任後의 活躍은 多大한期待를하고잇다

人事·集會

▲林繁藏氏(朝鮮土地改良協會會長)新任人事次來社
▲三井榮長氏(同副會長)同上
▲澁田信一氏(同常務理事)同上
▲齋藤臣明氏(同技師)同上
▲古賀國太郎氏(朝鮮放送協會庶務課長)新任人事次來社
▲許英肅氏(女醫)莘子町一七五番地에서 產院開業人事次來社

人面錄

◇勞働力의 需給을 調節하기 爲하야 婦人의 屋外勞働을 獎勵하라고 大野總監 指示。
◇모심저 검매기는 벌서부터 하는 일이오 都會婦女는 工場、商店等에 나서 일하는이가 多數하다。
◇各方面에 婦女子가 나와勞働하는것은 婦人의 地位向上으로나 社會의 發展上으로나 意義잇는 일。
◇惑星 宇垣氏의 入閣으로新黨運動 一頓挫。
◇在來 新黨樹立의 意義는薄弱。 차라리 그대로 政府支持로 열치는것이 後日의 政黨生命으로 보아 올치 아홉까。
◇政黨이 黨是에 움게거지안코 政權만 目標하기 때문에 온갓 醜態가 續出되는 法。
◇開城、平壤의 端午구경을雨中에婦人들이 出沒。
◇雨後의 大同江上에서 白鷗와 배노리할도 一興致。

萬人共讚의天下名藥

食事倍加 陽氣倍加 活動力倍加

人生의最大幸福은 돈보다도 地位名譽보다도 健康입니다 이러케 重要한 우리의健康을 倍加할수가잇다면 누구던지 千金을 앗기지안코 家產을傾하야 이藥을 살것입니다 人生의最高의希望과 目的은 食、色、活動인바 百補丸을 服用함으로써 이 三大生理作用이 倍加되난것은 本社가 크게 壯談하는것보다도

異口同聲으로

百補丸을 服用한분은 食事가 느럿다 陽氣가 매우 조와젓다 무손열에나 힘드는줄을모르겟다고 누구던지다갓치말합니다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青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눈이밝어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 업서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다잘補하야 참말 完全히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 消湯됩니다

百補丸

百補丸의世界的進出
米國에第一回特派員派遣

百補丸은 벌서 朝鮮과 日本內地안에서만의 靈藥이올시다 滿洲國과 中華民國은勿論 歐羅巴諸國과 南北米各國으로부터 注文이 遝至하는中이며 昨年以來 英、佛、米、伊、獨等 二十一個國에 百補丸輸出을 開始하얏스며 今般 또 第一次特派員을 北米에派遣하얏습니다

朝鮮初有의大景品
締切 迫到!

本社創業以來 二十五萬圓의 百補丸 婦人百補丸大景品附大特賣는 發表以來 萬人의大歡迎裡에 締切이 迫到되엿슴니다 景品에 크게도 朝鮮第一이요 景品은 누구나 빠지지안코 다 타게되는 얘런好機會를 일지말고 동가홍상이면 景品잇는 어때 即時 注文服用하시기바라나이다

勿失好機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七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조경포태
婦人百補丸

名所巡禮 婦人見學團

그리운古都를차저 輕裝에冒雨登程

盛觀! 驛頭에넘치는歡送群 天候도祝福·一行떠나자快晴

경성역을 떠나는 부인견학단

단오(端午)의 가절을 이용한 본사주최 평양、개성(平壤、開城) 두군데명소 순례부인견학단일행 여든네명은 예정과가티 금일일 오전여덜시사십이분 본보사업부장 홍기문(洪起文)씨와 본사원 두사람의안내로 경성역을 떠나 일로목적지로 향햇는데 어날날세는 원망스럽게도 구저서 단원일동의마음을 번고롭게햇스나 자못 원기왕성하게 본사편집국장 함상훈(咸尙勳) 영업국장 김광수(金光洙)양씨외 본사원다수와및 일행의가족들의 환송으로 크게 붐잡을이루어 근래에드믄 대성황을 이루엇는데 정각이되자 미리특약해둔 특별차량(車輛)에 차례차례로 자리를잡고 안내자의 지휘를기다리는 질서정연한품이 노인들로 대부분인 부인부대이건만 훨만한 학생단체에비하야 못지안헛다

이번의장거를 손꼽아 기다리던나머지에 새벽네시반부터 역에나와 기다린단원도잇서 어번길의인끼가 짐작되거니와 개성 평양의 옛도읍을 단숨에 정복해버리려는 일행의기대도 엿볼수잇서 보내는 친족들로하여금 마음을 든든케하엿다 아리하여 목적지로향해떠난 견학단일행은 기차로 한시간남짓만지나면 개성에내려 만월대 선죽교를 구경할것이요 이것이끗나면 오후 여섯시이십분 개성을떠나 일로 평양을 향할터이다

納稅期日인當日에 戶別稅告知書傳達

京城府稅務當局의失責

사변하의 비상시국에잇서서납세의무자는 총후국민의 본분을 자각하야 그애국심을 납세보국으로써 이바지하고저각자가 긴장과 노력을 다하고 잇는터인데 이와가튼 가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세금을 징수하는 당국자의 사무삽체로 말미아마 납입기한안에 고지서(告知書)조차 전달되지안허 납세의무자를 당황하게 할뿐아니라 국가적납세성적에도 일대 지장을주지아니는중대한사태가 경성부당국에서발생되엿다

즉 경성부에서는 지난오월삼십일일까지바처야할제일기분세금이 영업세(營業稅) 가옥세(家屋稅) 호별세(戶別稅) 잡종세(雜種稅)의 국세(國稅) 도세부가세(道稅附加稅) 부세부가세(府稅附加稅)등에걸처서 납세인원십사만일천삼십오명에다가 조세총액이실로 이백사만구천오백팔십이원에 달하여잇는데 경성부당국에서도 신년도당초에 이번세금이 제일 만흐니만치 그선납에대하야 미리부터 용의만반의 준비를하고 잇섯슬터이거든 의외에 호별세(戶別稅)의 납세고지서가 납세기한의 마지막날인 오월삼십일일에 전달되고 또는 그기한을 지난뒤에 전달되여 문제를가젓다 기한안에 납입하려고 하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한사할도 그기한내의 납세를 할수업게 만든일이 발생되엿다 기한안에내지안흐면 의례히 독촉장이나오게되고 따라서 독촉료를 물게되는줄알고잇는 일반부민은 당황낭패하야 경성부로 세금을내러 또는질문을하러 몰려가고또 미처 준비를하지못하엿서 세금바칠도리를 못하는 부민들은큰 불안에 싸이게되엿다

中村稅務課長談

호별세납세고지서가 납세기한최종일에야 전달된 중대사건에 대하야 그당사자인 경성부중촌(中村)세무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부민에대하야는 정말미안한일엽니다 이호별세고지서 지연문제는 금년에비롯한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러케되여오는부득이한 일인데 이호별세는 연도초인 사월일일현재의 경성현주재에대하야 조사를하고 또사월말일까지 부양공제(扶養控除)신청을 기다려서조사를 시작하야 복잡하고방대한 조사를 마처서 원안을작성한다음 부회(府會)를 소집하야 등급(等級)을 결정하고 일백여십등이나되는 각등의원칙만여명에대하야 일일이 계산가록한후 이를 전달하기때문에 언제든지 이와가티 납입기를 떠당하게까지 됩니다 사월칠일에 착수할수박게 업는일이니까 정말 손이부족하고 도저히 이이상 빨리할수는업서서 그전부터 경성부의 호별세납입기만은 유월말일까지로 변경하여 달라는것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왓습니다 내년에는 기어코 기한을 한달느리게 할작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사무삽체로 이러케된일인즉 유월십오일까지나그 납입을 밧겟습니다 따라서그때까지 독촉장을 내는일은업겟습니다

洋裁學院에서 慰問袋六十個獻納

부내장곡천정(長谷川町)에잇는 양재학원(洋裁學院)여생도오십명은교사 복증외웅(福增外雄)씨의 인솔로 조선군사령부애국부에차저가서 전지용사의 위문품으로 각기자기손으로만든 인형(人形)을기타수점을 너흔위문대예순한개를바치엿다한다 그학원에서 위문품을바친것은 이번까지 네번째이라한다

現金으로冊注文바더 盜賊질로需應!

某官廳工務課員惡行

모관청공무과(工務課)에 근무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책을주문바더가지고 돈을밧고 책은서점에서 훔처다주자가잇다 시내신당정(新堂町)일백육십이번지외사십팔호 오희구(吳熙九)(二一)는 이사나이는 시내모관청공무과에 근무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책주문을 마터가지고 그책은이와가티 서점에서 훔처다주고 돈은 자기가바더썻는데 삼중정(三中井)대판옥(大阪屋)등서점에서전후사오차의 서적절취한것을 자백하엿다

工業大會出席者에 汽車賃二割引

오는 이십삼일 이십사일 이틀동안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오회전조선공업자대회 출석자에 대하야 철도국에서는 인천까지 왕복하는 차비를 이할인하기로 되엿다한다 그기간은 오는십오일부터 이십사일까지이며 통용은 이달말일까지이라한다

朝鮮美展 總督特選賞 三點이增加

제십칠회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展)특선(特選)은 명이일에발표될터이요 참여상(參與賞)상(賞)과 총독(總督)상은 삼일에 발표하기로 되엿는데 금년에는 총독상의작품이 여섯점가량이 되는모양이다

鑛業權移轉問題로 野口氏거러提訴

百萬圓짜리가鑑定結果八萬圓

지난이월이십오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는 원고동경시마포구서정(東京市麻布區西町)십천덕지조(辻川德之助)씨가 일본질소재벌의 하나인 함남 함주군흥남읍(咸州郡興南邑)조선질소 비료주식회사(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사장야구준(野口遵)씨를 상대로한 시가팔만원의 광업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하엿섯는데 소장에의하면 피고야구씨는 소외(訴外)등전(藤田)광업회사와간에 유화철(硫化鐵)거래를 하며다른광에서는 유화철을 사지안는다고계약을하엿스므로 원고의소유 강원도김화군·창도면(金化郡昌道面)유화철광을 자기명의로 등록을한다음 채광에소용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에게서광석을 사고잇섯다 그런데 최초계약과가티 원고가 피고에게비용일체와 부채까지를 변제하엿슴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광업권이전등록을 하여주지 안는다는것이다 그리고 더한층 흥미잇는것은 동법원에서 그광산의 설치감정을 하엿든바 평가팔만원으로 되여잇는것이 사실은시가 백만원가량이됨으로 일일원고로하여금 이에관한 수속을 마치게한것인데 어백만원 유화철광의광업권은어더로가게될지주목밧고잇는 문제라고한다

구두도적

시바톱되여 경기도개풍군동면발송리(開豐郡東面鉢松里)태생 고상률(高相律)(三〇)은 망업구두공업(구)(宮崎)번지 경복권판(景福旅館)에 투숙하고 손님의구두를훔처가지고 내빼다가 종로서원에게 발견체포되엿는데 구두네커레를 가지고잇는것으로보아 여죄가만흔듯하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 月例訓話 沈友燮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趣味講演 崔象德 ▲八時 講演 辛泰嶽 ▲八時三〇分 歌謠曲 朴響林 劉錦燮 ▲八時五〇分 俗曲 ▲九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沈相健 杖鼓 韓成俊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物語 ▲六時二五分(大)講演 ▲七時三〇分(大)歌謠 ▲七時四〇分(東)講談 ▲八時(東)講演 ▲八時三〇分(大)漫才 ▲八時五〇分(大)義太夫

萬三千名이動員 愛國挺身隊組織

全南潭陽郡民의熱誠

전라남도담양군(全南潭陽郡)에서는 전시체제에 대비하기위하야 사변이래 자원(資源)의개발과 애호에 적극적노력하야 오든중 최근이운동을 일층강화철저하기위하야 동군당국의지도하에 애국정신대(愛國挺身隊)이백칠십이대를 조직하야 그대원일만삼천사백사십일명어 지난오월이십일일 오전십시 담양신사에 애국정신대 결성식과 대기수여식을 거행하얏다

그편성의내용을보면 봉부와지방을 갈러서 지방에는 다시학교대(學校隊)、청년대、일반대、지방간대가잇는데 작업종류는개간、경작、식림(植林)、도로수선등으로 작업일은 매월일일、유일의 애국일과 월예회를원측적으로 정하야 실행하기로되엿다

無錢取食三十五圓

무전취식호 회판! 삼십일밤열한시쯤되여 부내호정정(瓢井町)삼십구번지 내외수점경성관(京城館)에다음여섯명의손이와서 수시간에 정종칠십병을마신다음 밥까지먹고 삼십오원의 무전취식을 한남어지 어느틈에 하나、둘씩 다내빼버리고 최후로 제일취한원군이떠러저잇다가 종로서유치장에서 술잠을깨고잇다 ▲長沙町二五五韓相赫方 元心斗(二九)▲忠南大德郡鎭岑面農業 文在成(三〇)▲楊州郡榮道面議政府里一八八 朴南夏(二一)▲同所 趙仁九(二三)▲同所 趙東敎(三〇)外一名

色鉛筆

▲동대문밖을·비롯하야 왕래가 번잡한 거리여 고로 벌려만 잇스면 사수생이패가 떼를지어 느러안는다 ▲유치원아이들의 자유화(自由畵) 보담서투른솜씨로 울긋불긋 그림그린 책을펴노코 불상한 실업자들의 주머니를덜고잇다 ▲궁공들의 느러놋는사수푸리를 귀찬키우려듯고잇는 그들도 보기에 딱하거니와 ▲이런조을류를 처치하는당국자들의 소감은어떤자? ▲그네들은다 큰사람의 운수를 판단해주고요

中央中學校

卅週年記念式盛大 十年以上勤續表彰敎員도六人

시내 계동정(桂洞町)중앙중학교(中央中學校)에서는 금일일오전구시삼십분부터 동교본관 강당에서 창립삼십주년기념식을거행하엿는데 래빈으로 경기도지사대리(京畿道知事代理)고전시학관(高田視學官)이하 학교관계자다수 참석하에 식을진행하엿고 이어서 십년이상근속직원 표창식을 아울러 거행하엿다 동교는 그간 일천오백여명의다수한 졸업생을 우리사회에 배출하엿스며 현재재학생이 팔백이십명이나된다하며 십년이상근속표창을바든직원은 다음과갓다 ▲李鍾▲高白煥▲朴昌夏▲沈亨雨▲馬善恒▲金亨俊 그리고 기념운동회는 이일오전팔시반부터 동교정에서 거행한다는바 일반의다수래관을 바란다고한다

(사진은 前列右로부터金、朴선생後列右로부터馬、高、李선생)

信者에게빗진데含怨 天道敎를中傷誣告

알려진東署怪投書

태산이명동에 서엄봉(泰山鳴動鼠一匹)-천도교를 배경으로한 모종대음모사건이나 아닌가하고 형사대 전원총동원으로 수사에전력한지 이주여에 알고보니 사실은 무근한일-생선행상이 꾸며낸 채귀응징연극(債鬼膺懲演劇)한막에 지내지안허 그동안에 태던 경찰로하여금 아연케한사건이잇다

지난오월십팔일 저녁때가되여 시내 명륜정(明倫町)사정목 천도교(天道敎)간부 김경함(金庚咸)씨에게 충남서산읍(瑞山邑)발신의 서명업는 괴서신 한장이 날러드러오는것을 마치황해도천도교구파의 불온사건이잇슨 직전혀 면관으로 수사대로하여금 아연케하엿다한다 즉문제의괴문서의 발신자는 전천도교신자로 서산군 고북면양천리(瑞山郡高北面楊川里)삼백삼십칠번지에사는 생선행상한흥표(韓興杓)(四二)라자로 동내에 사는 천도교유력자 정백선(鄭百善)외수명에게 채금이만허 비ㅅ빗가튼 독촉에 져되여 화갈이 업서 그윽한원을 품엇고 꾸며낸 연극으로 전기채권자정(鄭)씨등이 경성에잇는동교간부 김경함씨와 친교관계가 잇는것을 눈치채고서 황해도천도교 구파가구의 불온사건이잇는이때를 이용해서 김씨에게불온한내용의 편지를내면 밧드시 서산읍 채권자 정(鄭)씨등 천도교도가 혐의를밧을것은 틀림업스리라고 넘겨잡고 꾸며낸 연극이엇든것이 판명된것이라는데 태산명동 서일필! 연극의장본인 한흥표는 삼십일 동대문서에서 이십구일간의 구류처분에 처하엿다한다

瓦斯發生爐設置

獎勵金交附細則發表

每個費用七百圓中五割을補助

총독부에서는 전시체제에 대비하기위하야 석유(石油)、휘발유(揮發油)등의 기관용유(機關用油)를 절약하고자 천번에 와사발생로(瓦斯發生爐)다섯가지 조종류를 구입하야 자동차에 장치시험한결과 어느것이나 모두 그성적이 양호하므로 이것을일반자동차교통업자에게 적극적장려하기로 결정한후 금일일 총독부령 일백십칠호로써 와사발생로설치장려금교부규측(瓦斯發生爐設置獎勵金交附規則)을 발표하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대개 이와사발생로를 자동차에장치하는비용은 한개에약칠백원가량으로 규측에『장치비용총액중에서 장려비오할을 교부한다』고하얏슨즉 결국삼백오십원의보조를 밧게되는것이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일백개에한하야 장려금을교부할터이라

本社主催産業視察團 明朝에京城歸着

七時廿五分京城驛에

지난달 십륙일날 발정한본사주최만주、북지 산업시찰단일행은그동안 반개월이상의 일정을 무사히다마처 산업시찰의 만흔 수확을거두어가지고 삼십일일은 평양(平壤)으로 돌아와서 대동강변 조선호텔에 하로를정하고 한후 드디여 이일아침 일곱시이십오분 경성역착 열차로도라오게되엿다

스포-츠

금을바칠자격이잇는 청년들이라고 자격을 인정하는이지▲그러찬흐면 곳을든기 유기장(游技場)까닭이 대중오락상아 목인을해주는지▲하여간 다시생각해볼일!

全日本中等蹴球 關北豫選戰

【咸南支社發】朝鮮蹴球協會主催의 全朝鮮中等學校蹴球選手權大會와 大每主催의 全國中等蹴球大會의 關北豫選大會는 來六月十六、七、八의三日間 咸興公設運動場에서 開催키로되엿다 參加希望校는 咸興府榮町協會咸北支部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都市野球北朝鮮豫選

【咸南支社發】大每主催全國都市對抗野球北朝鮮豫選은 咸南體育協會와 大每通信部의 共同主催로 오는六月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二十六日兩日間 咸興公設運動場에서開催키로되얏다 申込은 오는二十日午後四時까지 咸興府體協에 申込하여야한다고한다

京城帝大山岳隊 北支五臺山登攀

京城帝大山岳部에서는 北支小五臺山登攀과및 內蒙踏査를 行하게되엿는데 오는四日午後六時半부터 府內南米倉町 京城俱樂部에서 在京官民有力者를 招待하야 山岳隊結成式을 擧行하기로되엿다한다

學生野球決勝

朝鮮學生野球聯盟主催의 第二回大學、高專野球大會決勝…京城帝大對京城醫專戰은 明二日午後四時부터京城球場에서 擧行할터이라한다

研武館昇段者發表

朝鮮研武館의 定期昇段進級試合은 지난二十七日午後七時에 同館에서擧行하엿는데 出場者가百餘名에達하야 滿堂觀衆의注視속에終了하엿다는바 그成績을査定한結果 昇段進級者가四十七名이나된다고한다 ▲三段 安秉璜 ▲二段 李昌吉 ▲初段 宋球鏞 金南均 李榮根 黃裴庚燮 ▲初段候補 李允洙 黃炯模 呂運暎 ▲一級甲二名 ▲一級乙四名 ▲二級甲一名 ▲三級甲二名 ▲三級乙一名 ▲四級甲五名 ▲四級乙六名 ▲五級甲三名 ▲五級乙一名 ▲六級甲六名 ▲六級乙四名 ◇少年部 四級乙宋金得 ▲五級甲安準孝 ▲五級乙李康元

中風·高血壓·神經痛은 血의混濁이原因
血液을淨化해서 循環을조케하면 낫는다
藥物療法으로 有名한 今津博士는 專門醫學博士이신가 어떤病의 原因을 徹底的으로研究한結果 酒、煙草、淋疾、梅毒、便秘、胃腸病、腎臟病、心臟病、婦人病、過勞、心勞 等으로血液이混濁해서 循環이 나부기때문에 어러나는것으로서 血液의混濁을 除去해서 循環을 조케하면 낫는다
경장한 血液淨化劑
지긋지긋한 半身不隨·語訥도 하로이들조아저서지금은일에從事
今津硏究所

海草精
適應症

山 鑛 機械 農具 工具
平壤南門通 五六商会本店 電話代表56

時勢の要求!! 支那を學べ
唯一 速成
●費用低廉●期間短日●初學者も容易修得卒業●
監修者 包象寅 施雲卿 兩先生
支那語實用會話講義錄
支那語實用會話學會通信敎務部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名賣藥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雨衣都散賣
여러분의 사랑하는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엿습니까 雨期는 일로부터올시다
朝鮮防水布製造所 京城府新堂町 電話本局五三〇七二番

朝報案內
朝鮮防水布製造所
家具
尋兒
小口貯蓄保險係募集 三百圓均一
板谷生命保險朝鮮支店

(時價表進呈)
星 標苦草製粉 丸星商會 釜山府

京城府仁寺町一七八番地(寺洞四街里)
內科 小兒科 姜內科醫院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高級 アイスケーキ 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朝鮮冷凍工業所 釜山府大廳町通り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五·六學年學科講義
朝鮮高等普通學會 京城府和泉町六

トリパアギン
淋疾
男女 急性! 慢性! 如神奏効함!!
各名大醫實驗推奬使用劑
朝鮮新藥合資會社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番

祝 紙齡六千号 革新五周年 記念 朝鮮特産品展覽會

消滯良藥 天一靈神丸

初夏의 保健!

夏節은 消化不良이 되기쉬운 季節입니다
恒常 飮食에 注意하서여 脾胃를健全케하
실것은 勿論이거니와
恒常 家庭에나 旅行하실때나 반드시
天一靈神丸을 常備하시엿다가 不意의
疾患을 防禦하십시다

效能

●食滯 ●吐瀉藿亂
●暑滯 ●消化不良
●酒滯 ●胸痛
●氣鬱逆上 ●關格
●腹痛 ●頭痛眩暈

(藥價) 十錢・二十錢 五十錢・一圓

발찌나 등창이나 유종이면 볼거
리 같은 큰종긔에는 두말할것업시 腫症仙藥
趙膏藥이 제일이거니와 조그만한 면종이라
던지 긁어서 부스럼이되엿거나 견비
요통 낙상어혈 같흔데도 반다시
됴고약으로 치료를 하십시요

(주의말슴)

오래된역사와 수천만인의 치료경험으로
보아 그 위대한 효능을 여실히증명하는
바엽니다 최근류사품이 만흘뿐아니라
증상을하는자가 만사오니주의해주십시요

(藥價) 五錢 十錢 二十錢
各地有名藥品店에 잇습니다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京城府禮智町一七九
發賣元 天一藥房 京城府禮智町一八九

補血强壯强精劑 ロクミン은

體質의 强化! 早老의 防止!

血液의 淨化! 精力補給!

肺虛의 充實! 疾病排除에!

本劑의主劑는 漢方古來로 補陰補陽劑
大味를 最新化學的操作에依하야 新藥
化한것으로 特히 人蔘、鹿茸、葡萄糖、
有機鐵及强精劑를 特히 合理的으로配
合하야 治療機能上新舊兩藥으로 治療
의機敏을 圖한藥이올시다

效能

○肺結核 ○精力增進
○神經衰弱 ○産前産後
○消化不良 ○萎黃病
○急慢性貧血 ○小兒發育不良
○腺病 ○諸病恢復期
○老衰防止 ○陰萎等에突効

(藥價) 五〇〇瓦入 金三圓也

結核豫防 强力殺菌에

Allysin アリヂン

藥學博士加來天民先生創製

アリヂンA는 新强精强壯劑로서 精力補成에 奏効하며 特히 肺結核患者에 効가 有함
アリヂンB는 從來의ワクチン注射劑와異하야 純植物成分으로된 新內服用强力殺菌劑로서 各種傳染性胃腸疾患의 豫防及治療에 奏効함

組成

本品은 プロピールアリルヂズルフイドC6H12S2 ヂアリルヂズルフイド (CH2=CHCH2) 2S2及 ヂアリルトリズルフイド (CH2=CH-CH2) 2S3를 主劑로하고 グアヤコール을 配合한帶黃色透明의 ゼラチン膠囊劑임

特徵

一、本劑는 硫化アリル를 主劑로 한것으로서 此主劑의稀釋液 (約○・五%以下)는『コレラ』菌을三十分以內에 『腸チフス』菌及『パラチフス』菌B型을五時間以內에 死滅시키고赤痢本型菌及 同類菌을二十四時間以內에全히死滅시킴 大腸菌、黃色葡萄狀球菌은 二十四時間以內에 全혀死滅하던가或은 그發育作用을完全히制止시킴
一、本劑의 常用에 依하야 體力增進及精力을 旺盛시키고 또한 腸內傳染性疾患의發生을豫防하는 効가有함
一、本劑는 長期服用하더라도 副作用이無함

適應症

A號 肺結核、急慢性胃腸疾患、消化不良、榮養障碍、體力及精力減退、腸內異狀醱酵、十二指腸虫、蛔虫等腸內寄生虫의驅除等
B號 各傳染性胃腸疾患 (赤痢、腸チフス、腸窒扶斯、疫痢等)

用法及用量

一日三回一乃至二錠宛服用함
A號는食後三十分 B號는空腹時에服用함

包裝價格

	一〇〇粒入	二五〇粒入	五〇〇粒入	一〇〇〇粒入
A 號	3・00	7・00	13・00	24・00
B 號	3・40	8・00	15・00	28・00

우리차지

이상한대답

「소가죽은 무엇에 쓰느냐」
「소몸동이를 싸는것이니다」
「벼나,보리는 왜 심는지알겟니」
「그건 농사 짓느라고 심는거에요」
「사람들이 모자는왜쓰고다니니」
「인사할때 버슬라구쓰는겁니다」

(공주사람 장동연)

家庭

집안에서손쉽게 할수잇는방수(防水)법

지리한장마비를압두고 미리준비해두어봅시다

◇제 장마철이되면 각가정에선 간단한 방수법(防水法)을써서 레인코ー트 파라솔 만든가튼것을 다시 고처쓰시면 조켓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품은 초 비누 명반 삭산등으로써 비누는 가루비누는 절대로되지안코 보통세탁용 비누로 파히 나뿌지안흔것이 조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물켜는 초를 녹여서 하는것으로 평평하게 자리를펴고 그우에 만또든지 양산이든지 레인코ー트던지 하여튼 방수할 물건을 쭉펴서 주름살이업게하고 그우에 초를 가볍게 문지릅니다 또 파라핀이면 헌겁에대고 문질릅니다.

그런담에 과히 뜨겁지안흔 대림으로 그우을 살살 문질너대리는데 만일 너무 뜨거우면 여러가지로 재미적습니다.

◇

이것은 회발유에 초를 칼로 잘게 깍거너허서하는것인데 회발유 배에대해서 약삼퍼ー센트가량 초를너코 이것을 녹입니다.

그런다음 이물로다 방수하려는 물건에 대고 가늘게 뿜는 기게에너허 뿜습니다. 그런다음 역시 아이론으로 대려서 초를 골고로 펴든러 녹여부칩니다.

이러한때는 그녹인물가운대 집어너허도 조치만 그러케하는것보다 뿜는것이 칠신 더경제적이고 쓰다가 남은약은 병에너코 막애를 꼭해두면 오래동안 보존할수잇습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주의할것은 방수하려는 물건이 더러워슬때엔 먼저 세탁을 한담에 할것이며 또 저즈데 해서는 잘되지안습니다.

그담에 빗갈이잇는것이면 여러가지 약품에 퇴색하지안흘던지 그런것도 미리알어볼 필요가잇습니다.

만일 퇴색할 염려가잇스면 명반과 조산연(醋酸鉛)을 백비량에 가튼분량으로 녹여가지고 그물에당것다가끄내서 다시 비누물을 풀고 거기다 재바르게 너헛다냄 다음 또다시 조산알미나액에 너헛다내면 물색이 그대로잇습니다

◇

조산아루미나 방수법은사기이피대야들을 준비해노코 한쪽에는 더운물백에대해서 백반(明礬)을 다른대야에는 더운물백에대해서 가튼분량의 조산연을 녹여탑니다. 이두약이 식은뒤에 나무통가튼데 한데부어 합치면뿌ー여케 가라안는 것이생기는데 피쟁이가 를것을너어작구휘 젓다가 그대로한참 내버려두면 힌것이가 라안고 맑안것이우에뜹니다 이물을 따로떠 가지고거기에 방수할것을 당것다가 살며시 짜가지고 그늘에말립니다. 이방법은 헌레인코ー트나 만또 모자가튼데 이용하면 조흔데 방수의효과를 강하게하기위해서는 한두번 더이방법을 취하면조흡니다.

◇

조산알루미나 비누방수(醋酸알루미나石鹼防水)로 말하면조흔세탁비누를 물백에대해서 그비례로타가지고 이물에 물건을 담거 밤잠만 린뒤에 먼저의 『조산알루미나방수법』에의한 방법을취하면됩니다. 더잘될라면 여기에다가 약소ー다 문지르거나 회발유에 초를녹여하는 방법을하면 완전한 방수효과가납니다.

여름부인구두

가죽의절약때문으로 『싼달』형이단연전성 물고가가죽도나왓다

여름이되면 여자들 옷치레와함께 제일눈에 뜨이는것이 구두치레입니다.

그런데 일반다른 물가가 올라간것과가티 가죽도 엄청나게 갑시올라서 좀체로 구두를 해신을수가 업게되엿습니다.

[illegible] 특증은 소재의 소가죽이나 악어껍질뿐만이아니고 연어껍데기 상어껍데기가튼 생선가죽을 쓰는일이 만흔데 한거레에 십사원쯤됩니다. 모양은 대개『싼달』형의구녁이 숭숭뚤리고 그물가티생긴모양이 유행되는데 이것은 가죽이 경제도되고또 여름에 시언한 맛도잇스라고해서 하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런모양의 구두를신으면 발이 몽촉하기안코 길쭉해보여서 발모양도조흡니다.

뒤축은『큐ー바힐』이라고해서『하이힐』보다 약간낫고 굵은것이유행되는데 이것은 위생상으로보아서 대단히 조흡니다. 전가틀면 이러케 굽이나즌것이면 산보회에나 쓰겟고 또는 압혀 좋은것도 요즘은 나드리구두로질를 신습니다.

빗갈은 전처럼 크림색, 엷은초콜레잇색, 검정이, 또는 두세가지색을 섞거서 만든 것들을 씀니다. 그리고 끈 색구두도 만히들 신습니다 헌겁으로만든것은 작년에 사원하든것을 지금은 오원정도이고 아조 흰것보다 헌것의 누리끼한것을 그대로한것이일반에게환영됩니다. 가죽구두가 하도비싸니까 이런 천구두들을 만히신게되면 조흘것입니다.

사진은 바른편으로부터 산뜻한의 하이힐, 가운데가뒤축이 넓적한것으로 스마트한 흰것도 외편것이 엷은초코렛트와 검정이 섞거 맨 뒤축이약간 나즌하이힐.

누구나시려하는 군색한살림 ❷

무슨수로면할수잇슬까 비결은오즉저금에잇다

이러케 월급이나 바더서 겨우 생활해가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다만얼마식이라도 저금을하라고하면 혀를 내둘느게됩니다.

이러케『지금도 모자라 죽겟는데 저금이 무슨 저금이애요』게시겟지만 가만계십시요. 여기 아무리 적은 수입으로도 저금할수잇는 방법을 말슴하겟습니다. 소위 살림사리에 드는돈이란 밋빼진 항아리에 물붓기로러 터만런 한이업습니다.

그러므로 월급바는이들이 만일 오십원을 밧는다하면 그오십원으로 겨우 살림을 해나가니까 그저 육십원만 바드면십원하나는 저금을할것가티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육십원을 밧게되고보면 ●언구녕으로 그돈이 다드리갓는지 한푼도 남지를안습니다. 이래서 오십원을 바드나 백원을 바드나 밤낫 쪼들니고 너르지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봉급자들이 어떠케하면 저금을해날수잇슬가ー 그것은 꼭그당자의 맘하나 단단히 먹기에 달렷다고햇습니다 저 월급날 월급이 드러오거든 몬저 저금할것을 맘먹고 따로떼여노흐십시요 그담에 쌀가가에도 추고 장작도 사고 반찬가가에 외상도 심하고……이런방식으로하셔야합니다.

그러치안코 몬저 쓸데부터손을 대다가는 여게도 써야겟고 저게도 주어야겟고 어듸 돈을 써보면 한정이잇습니까. 결국한푼 남기지안코 다써도 그래도 모자라게되여 저금은커녕 아모것도 못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애초에 저금할 것을 떼여노흐면 업스면 또업는대로 그대로 살어가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첩안이 이러케 작정해거든 첫재로 밧갓양반의술갑 담배갑 차ㅅ집에 드나드든 것ー이런것을 절약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바깟양반의 용돈이란 수월한게아닙니다.

저금을하는데는 우편저금이제

포켓 행커취ー프

손수건이란것은 본래 손씻는다던지 입을씻는다던지하는것으로 말하자면 몸을 거두는데 실용품입니다.

그래서 그저 흰헝겁으로 큼직하게 만들어서 자조빨어 깨끗하면 조흔물로알엇스나 이사오년내로는 다소간 다른 경향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손수건이 실용품만이아니고 사치품이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로 취미화를하고 또 하나의 와전한 유행을 만드는것입니다.

이러케 취미화를 햇기때문에 현대인의 취미에 맛게하느라고 여러가지로 물을드리고 문의를박아 전처럼 그저 단순하게흰 수건을 쓰지안코 색수건을 만들엇습니다.

더구나 남자들 포켓트에 넛는 수건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염색과 문의를 노코 넛는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조선서는 아직도 남자들이 포켓트행커ー취프를 너코다니는분이 때적습니다 그것은 생활상 여러가지 곤궁한 원인도잇겟스나 아직 눈에 서투른까닭에 이런것을 너코다니면 공연히 멋이나 부리는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러치 안습니다.

이러한것의 본고장인 서양서는 훌륭한 신사의 예의잇는 복장엔 의례 이포켓트행커ー취프를 맵씨잇게 넛는것입니다.

포켓트행커ー취프에제일조흔것은 서양모시로 만든것인데 살에다으면 산뜻하면서도 바삭바삭하는감촉이 무어라형언할수업스리만치 조흡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지금처럼 수건의 여러가지 염색을하고 모양을 너허짜는데는 이서양모시가 물감이 잘들지안허서 불편합니다.

그대신 또 조흔것은 비단인데 명주실엔 염색이 아주잘되고 보드러워 조키는하나 어쩐지 너무 매끈매끈하고 휘주근해서 여성적인데 탈입니다 아모래도 행커ー취프에는비단이아조 적당하다고는못할것입니다.

그담에『가ー스』라는게잇는데 이실은 무명실로 만든것인데 이가ー스는 여러가지로 가공을해서 모시와가티 바삭바삭하고 명주와가티 윤태가잇서 여간 아름다운것이아닙니다.

이것은 질기기도하고 염색도 잘되고 감도 치므로 문의를너허짜는 감에는 아조만히 씨읍니다.

그래서 요즘 불란서따리가튼데서 아조 썩고급수건은 모시실과 이가ー스실을 섞거짠것인데 수건의 힘바탕은 아조정선된국히가는 모시실노하고 물을드린 부분은 가ー스실에 여러가지로 물드린것으로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건이 아주섬조흔것은 수건을 십전자리 백통전구멍으로 내보내리만치 그러케엷게 만든것이랍니다. 그러니 웬만큼 엷은명주보다 얼마나엷고 가법겟습니까. 어쨋든 행커ー취프는 이러케 엷고 가벼운것이 환영됩니다.

그런데 행커ー취프를 가슴에 꼿는데는 너무엷고 길어도 너무 우숩고 너무 항쿠로 구겨넛도 못씁니다. 그저 되는대로 척집어넛흔것 가트면서도 사실은 그러케 되는대로 넛치안코 멋지게 넛는것이 제일입니다 또는 되는대로 넛는게라하야 구겨진다던지 때가 뭇엇다면지하면 그것은 아주창피한일입니다.

빗갈에잇서서는 연미복가튼 예복의경우엔 의례 힌것을쓰고 보통양복엔 넥타이나 양말의빗갈과 가튼계통의 빗갈을택하되 약간 엷은것으로하면 제일 효과적이요 온아한조화가 생깁니다 또는 아조 정반대의색 이를테면 차빗새양복에 양청빗 행케취프, 뿌라운양복에 푸른것등도 산뜻한 양풍미가잇서서조흡니다.

그런데 수건이 너무크면 상스럽고 넓우빗갈이만코 문의가 만흐면 천착스러우니 할수잇는데로 담박하고 조촐한것을쓰면 효과는 대단히 클수가잇습니다.

행커ー취프의 싸이즈(大小)도 신사용은 십오인치로부터 십팔인치 부인용은 십이인치로부터 십삼인치가 조흡니다.

행커취ー프의 대한연구도 요즘엔 극히 복잡해서 별별모양과 색채가 현대인의 감각을 만족시키고잇는데 처음부터 접어너흔다음에 모양을 생각해서 네귀에문의가 각각다르게도 만들고 약간 장방형으로만들어서 접어너흔다음엔 아모래도 좀허려저진 모양이되게하는수도잇고 무쯧우에 떠노앗슬때 감각을 꼬집어내서 수건가온데 크다란꼿한쪽이를넙죽이그러노흔것도잇습니다

어쨋든 수건한개를 꼿더라도 그사람의 의복과 그밧게 여러가지가 다갓추갓추 마저야하고 또 어려한 물재라는는 그사람의 교양과 성격을 나라냄으로 써갈하기는 역시 쉬운일이 안입니다.

第20回 學生美術展覽會

會期 十月中　場所 本社大講堂

出品種別

◇中等部 —師範部·中學部—
- 東洋畵科
- 西洋畵科 —圖案畵包含함—
-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 自由畵科
- 手工科

褒賞

【中等部】
- 特選　各科若干人各正賞賞牌 副賞五十圓
- 優選　各科若干人各正賞賞狀 副賞三十圓

【初等部】
- 特選　各科若干人各正賞賞牌 副賞二十圓
- 優選　各科若干人各正賞賞狀 副賞十圓

◇特別褒賞　本社社長賞　一人百圓　特選作品中에서一點을選하야 特選賞과倂하야授與함

◇申請及搬入＝申請과搬入은 同時에하되『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로 期日은 九月二十七日까지

◇出品規定＝本社所定의 申請書에 各項을明細記入하고 作品 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 作者氏名 住所와 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 明記하야 搬入할것 (詳細規定은 葉書로 問議할일)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愚氓 【36】

朴泰遠 作　洪祐伯 畵

白主事의집 (2)

옥화가 백수사를 따라서 이곳 사리원으로 온것이 작년동짓달ー 그러니 그사이 벌써 여섯달의 시일이 경과하엿다.

독자는 백수사와 함께 해주를 떠나던 당시의 옥화가 떡으나 행복된듯시펏던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게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사이ー벌써 햇수로는 이태가 경과되엿다. 지내보느라면 사람의 일이란 뜻과갓지 못한수가 만타. 옥화는 지금 자기 신세를 불행하다ー생각하고 잇다.

그리키로 말하면 살림을 들어오던 당초에 물론『행복』만을 옥화가 꿈꾸고 잇섯다는것은 아니다. 허지만 여러가지로 조건이 그다지 불행하기야 하랴ー하엿다.

물론 큰 부자라 할것은 못된다. 못되지만 [illegible] 루어 물때 위선 의식 걱정은 한평생 안해도 조흘것이다ー그러케 옥화는 생각하엿던것이다. 눈이 시퍼런 본마누라가 잇기는 잇다 허지만 자기 살어생전에는 결심코 이혼은 안해줄테니 그런줄 알라고 혼자서 버티고 잇다는 그뿐이지 친정으로 쫏겨가 잇는지도 이래저래 한 삼년이나 되나 보다. 그러니 오직 민적에만 못들엇달 그뿐이지 사실에 잇서 자기가 정실이나진배업지 안흐냐.

더구나 영감은 작년 여름부터 정말 자기한테 반해 가지고 적지아니 돈을 써오다가마침내는 몸갑을 칠어주고 떼여들인터이니 이제 아들 하나만 터억 나허 놋는다면 대체 그박게 두어울 더 이세상에서바라랴?……

그러나 옥화는 정작 살림을 들어 온지 한달이 될까 말까 하엿슬때, 이미 자기의 불행을 발견해 내고야 말엇다.

물론 본마누라라는것은 대체 어떠케 생겨 먹엇게 남편에게 소박을 마젓는지, 아직 파다지도 못물러이요, 또 금부치라든 옷가지 가튼것으로는 무어 조금도 남부럽지 안흔 옥화엿다 그 두가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가태 아무런 걱정을 안하여도 조타. 그러나 도시 문제는 영감에 잇섯다.

그것이 흔히들 이르는 의처증이라 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대체 영감 가티 강짜가 심한 사내도 처음 보겟다. 호옥 그것도 눈을맛치라 뭇슨 근거가 잇나하면 또모른다. 허지만 이것은 백판 아모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구는것이 아니냐?

길에서 다른 남자얼굴 좀보앗다고 무어니 무어니 남자가 호옥 길 무러보는데 한마디대답만 하여도 어쩌니 어쩌니. 나중에는 트집 잡을것이 업서 오늘은 화장하는게 평시와 다르니 자기 나간사이 호옥 누가 오기라도 하느냐는등ー참말 깃구녕이 막힐 일이아니냐?

드흥이 편지속에 뜻하지 안코『안상』말이 잇서 참말 그때는 대판으로 쌈도 하엿지만 물론 전에『안상』하고 조하지내것은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를테면 지금 영감과 서로 알기전의일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야단이니 이러고야 어데 [illegible] 그럼 그것은 자기와 알기도 전의 일이니 그만 둔다 하더라도ー하고 영감이 말하기에 무슨 또 책잡힐 일이 새로히 잇섯나?ー하엿더니, 알고 보니까, 해주서 이곳으로 올때에 한차칸에 탓던 학생이야기다.

그것도 그때 정신을 일코 보앗다는 그것만이라면 호옥 핀잔을 마저도 하는수 업다. 허지만, 이건 애매하여도 분수가 잇는것이지, 밤나즈로 그 남자 생각만 하고 잇섯다니, 온, 나중엔 별소리도 다 들어 본다. 참말 하날께 맹세하여, 자기는 그 학생 생각을 하여 본일은 여지껏 업다. 그런걸 가지고서 영감이 생으로 강짜를 하니, 저엉 그러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그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래 보마. 실정대로 말하자면, 그 학생이라면 미상불 목숨 내노코 사랑을 하더라도 한 보람은 잇슬께 아니냐?

그러나, 영감이 이처럼 강짜가 심한것도, 따저 보자면, 자기라는 여자를 너무나 극진하게 사랑하는 때문이라고 말할이가 잇슬지도 모른다. 그러키나 하다면 자기는 얼마나 행복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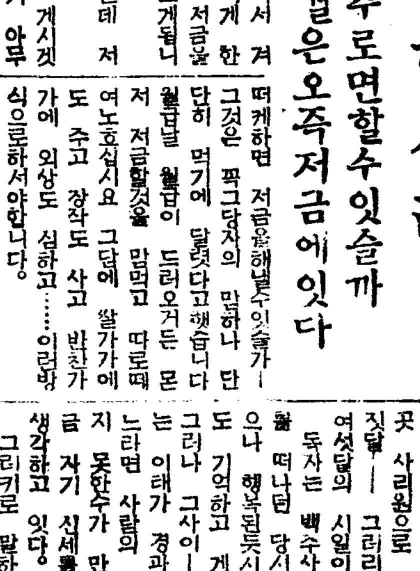
허지만, 결코 그러치 안타. 영감은 한번도 자기를 밋고서 그의 마음을 주엇이란 업다.

자기는 대체 영감이 무얼 하는 사람인지 이제 이르기까지 모르고 잇는것이 아니냐? 영감은 그러것조차 결코 열려주지 안는다.

無病長生 只今評判인 特殊한 養生法

微量奏効의溫泉成分으로

예전부터 귀이게로하나식먹으면 下毒이되고 身體가속으로부터 튼튼히된다고傳해오는 溫泉精分으로만든 排毒 强精 特殊榮養劑 和黃錠을겨우一、二錠먹고자면 翌朝에참으로 氣分조케뒤를볼수잇고머리도갓든하야 氣分이爽快肩臂痛과 耳鳴 頭痛이업서지고 動悸와숨찬것이鎭定되여서 여러가지難病이快差케된다고 非常한 評判이되여잇습니다。



이러한症狀에
肩臂 耳鳴 頭痛과
不眠症으로辛苦하고動
悸와숨이차서血壓놉고
手足이무겁고아프고제리며
精力과根氣가업고便
秘해서氣分이틉틉한데

酒煙草便秘의毒 肉食菓子砂糖의毒 黴毒胎毒結核의毒 過勞心慮煩悶의毒ー以上의諸毒이胎內에 停滯되면全身血液은 腐敗酸化해서 여개가걸리고 귀가울고 手足이아프고 제리게됩니다 全身動脈은硬化해서 血行이나빠지고 血壓의亢進、頭痛、不眠症、中風、腦溢血이되야 精力과根氣가 衰해서眩暈、어지럼動悸、숨가쁨으로 苦生하게됩니다 또 神經痛、류ー마치스、心臟、腎臟病、糖尿病、痔、重한胃腸病、視力減退、○力不能、特疾等數만흔病이됩니다 病을根本的으로 治療함에는 먼저前記諸毒을 大小便으로빼고 血液의酸化腐敗를고치는것이아니면안됩니다 이目的으로쓰이는것이 古代로부터귀이게로하나식먹으면全身의毒이내리고 非常히튼튼히된다고傳해오는 溫泉成分으로만든特殊榮養劑和黃錠입니다 一日一回겨우귀이게로하나(一、二錠)식 먹는것만으로 氣分조흔大便에 毒이빠지고 氣分이實로 爽快하며 머리가갓든합니다。

和黃錠의優秀한効果

이藥은 決코多量으로 먹을必要가업고 一日一回又는 二日에一回로도 充分해서目的이 全身의毒根이되는 毒素를 大小便으로나오게하는故로 普通榮養劑와가티 量이만할수록 效果가잇는種類엣것이아닙니다。

밤에 자기전에服用하면 翌朝多量의 赤黑毒便(十人中九人까지는 小便도赤色)이 나와서非常히氣分이爽快해지고 繼續해서 服用하면 次第로五體에停滯된여러가지 毒이업서저서 血液이 淸淨케되고肩臂、耳鳴、頭痛이업서지고 腦髓도 [illegible] 上氣도내리므로 눈이시원하고視力이더합니다。

血壓은가장安全히確實히 下降하고手足도가벼워지고 語訥、動悸、숨가쁜것이눈에보이게減少해집니다。

그 同時에또 上內分泌을 旺盛히해서 老衰를 防止하고婦人의 容色을 젊게하는힘도잇서서 頑固한便秘에도實로氣分조흔便을 볼수잇습니다。

當場에나타나는効果

北海道 寺戶 潔氏(原文그대로)

拜啓本日和黃錠을맛고 即時服用햇든바當場에効果가나타나서놀랫습니다就白今日電報로一個月分代引小包便으로 注文하엿사오니대想必送付의줄아오며此後他人의依賴等으로 打電케될는지도 모르겟사오니 小生의住所姓名을記帳해두셧다가 テラト라고打電時는即時代引便으로 送付해주시기 바라오며 또發行하는파푸렛트中文獻無代進呈한다는것도 受苦스러우나 送付해주시기 바라오며 小生은지금까지 數만흔藥品을服用햇사오나 이와가티藥効가速히나타나는것은 처음입니다 餘不備

百八十이나되는血壓

城東區 中川 浪榮氏(葉書)

拜啓前日은 여러가지 冊을보내주시와 感謝합니다 바로龜戶의네オン藥局에가보니 貴店藥이잇스므로 今月도 服用시키고잇삽는대 前달 一個月間먹고 醫師의診察을 바든즉 百八十이되든 血壓이百三十미리 라고합니다 너무効果가조흐므로 亂筆로謝禮를올리나이다。

잘드러

靜岡 三村仁三郞氏

前부터中風에걸리고 여러가지로조타는藥을 써보앗스나 어느거나自己의 體質에맛지안코 一進一退로不快한날을 보내고잇든바 過日新聞에서 貴所의和黃錠이잇슴을알고바로 注文하야 每夕二錠식服用하엿는데 三日째부터効果가나타나서 무엇보다도 괴로운頭重이낫고 現今은每日便通이잇스며머리는 淸爽되고이치우에도치워서 하고잇습니다。 느저서未安하오며 기괴謝禮하나이다 敬白

中風과甚한便秘

群馬 淸水 範三氏

前略過日依賴한 和黃錠服用後의 經過를말合하겟습니다 不肖二年實은 내나이今年五十二歲인데 十數年前부터 心臟瓣膜病에걸리고 또 甚한胃酸過多症으로 食慾減退는 勿論、便秘는 一週間以上에미치는일이 각금잇고 따라서 不快한氣分은 이로말할수가 업섯습니다。 보내주신文獻을再三읽고 知識을어덧스므로 添附한藥品에依하야 療法을實行해본즉 翌朝부터氣分조케大便을보게되엿스므로이때만은 [illegible] 고……實로愉快해서이것을 繼續二回實行하려고합니다。(註)이實例에잇는 治療實行二回云云이라는것은 無代進呈하는 左記文獻中에詳細히써잇습니다。

右實驗例는조금도 粉飾을加하지안흠뿐아니라 誇大한點은 自發的으로削除햇슴

無代進呈

長生젊어지는法
無病長壽法
血液淨化療法(本劑應用)慈光院流

文獻에依하야 病에對한根本的 [illegible] 하라 加療如何로病은簡單히낫는다는것은 둘째로치고 于先養生書를必讀하라 新聞名記入申込次第上記養生書進呈

東京市四谷見附傳馬町一の三十七
特殊榮養硏究所 振替東京四七八二四 電四谷四一五六
代理店 東京玉置大木、中田 川手、橫濱櫻井 仙臺櫻井 大阪丹平、高橋 名古屋小林

排毒 淨血 通便 强精 和黃錠

溫泉成分 特殊榮養劑

●實로便通이조코 毒을防止하고 피를淸淨케하고內分泌을旺盛케하고老衰를防止하고動脈을 부드럽게하고 泌力을增進함。
●普通人은一回一錠、所謂귀이게로하나程度의 微量으로足하다。
●毒이빠지는關係로 大便이검붉고十人中九人까지는 小便도붉으며따라서黴毒胎毒에잘드림。
●血이淸淨되므로血壓이 安全히下降하고肩臂、耳鳴、頭痛、不眠症、手足痲痺、語訥、半身不隨等이快差함。
●和黃錠을취고잇스면 녹는다이것은 溫泉成分과 沃度와鹽酸의化學作用、따라서먹으면 곳吸收된다。
●誠心으로精製하고 絶對의自信을가지고世上에드리는 當所第一回의製品
●副作用絶無他藥倂用도關係업습

藥價低廉 一月分一圓二十錢 二月分二圓二十錢 四月分五圓 九月分十圓 送料各十錢海外卅錢 可及的直接注文해주시요代引도急送합니다

明治座

松竹キネマ 5月1日ヨリ6月5日マデ上映時間表

いろは系圖		1·54…3·16	6·30…7·55
ニュース	11·00…11·25	3·26…3·51	7·58…8·23
十三番目の椅子	11·28…12·33	3·55…5·00	8·26…9·31
永遠の感激	12·38…1·49	5·05…6·16	9·35…10·46

誰も知らないで 祭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

鬼吉喧嘩往來 監督 [illegible] 主演 兒井英男 羅門光三郎
ハリウッド大通り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포의福神

黃金座

日活 六月一日ヨリ六月五日マデ

京日ニュース		1·40	6·20
巨猫傳		1·50	6·30
朝日ニュース	11·00	3·15	7·55
戰士の道	11·10	3·25	8·05
パ社ニュース	12·13	4·28	9·08
ビシグゲーム	12·23	4·38	9·18

午前中入場者割引致シマス

桃花劇場

世界航空戰 電光一三三三番

中央館

本二〇一四

大每國際ニュース
裏町の歌 主演 水島道太郎 東龍子
伊太利ムツソリーニ首相後援
リビヤ白騎隊 主演 アントニオ·チエンタ
喧嘩大明神 主演 澤村國太郎 原駒子

優美館

電光三九五

スパイ戰線を衝く
俠星玄蕃
風流喧嘩侍

鳳來傳 (上)

「小說」

李殷相

序言

나는 鳳來를 보앗엇다. 鳳凰도 아니거니와 아무런 因緣도 없다. 더구나 鳳來가 사람이아니오 닭이엇다고하면 듯는이 — 다시한번 놀랄것이다. 옛날에 어느날 親友 崔君이 나를찾아 鳳來의 悲壯한 一生을 이야기하고, 鳳來의 傳을 지어 그魂을 위로해주기를 請한다. 그一生의 事蹟이 感動하고도 奇異하며, 奇異하면서도 悲壯하야 뭇은 者로하여금 感慨케하는바 — 잇기로 所請에 應한다하고 敢然히 붓을 바꾸어 이제 鳳來의 小傳을 草하는것이다 (著者)

鳳來의主人 崔君의이야기 — 가잇고, 잘지어놓은 우리가잇고 가 어느날夕陽 나는 집으로돌아가는 길이엇다. 이날도 亦是 菜蔬園에서는 數百隻 닭의 무리가 [illegible] 병아리 한마리. 논것이엇다. 문뜩보매 병아리 한마리 길가에서, 괴롭게 기어간다. 나는 놀라 그 병아리를 따라가 고이붓들엇다.

[illegible] 그가엾은生命을 붓들어 救하고 구원하고 마는 것이엇다. 어미 품에 안겨서 병아리를 데리고 生命의 [illegible] 나타나 一羽 병아리는 세상에 나타나 [illegible] 이 生命의 十字架를 망할것이다. 救命의 [illegible] 온것만도 可憐한 主人의손은 이를 그菜園에서 放逐해 버리기까지 한것이다. 모이도없고 동저리도 없고가 치를 同族도 [illegible] 길바닥우으로 放逐을 當한것이다. 樂園에서 버림받은 이 불쌍한 生命! 그러나 그生命우에 救援의손이 나린것은 얼마나 多幸한일이엇스랴. 나는 手巾으로 그병아리를 싸들고 집으로

안해는 바늘질을 가저왓다. 어린것은 실을 꿰어 그를 잡매엇다. 매는 아픔이 오작하리마는 [illegible] 命을延長하고 [illegible] 生의 新鋭에 [illegible] 마음이다. 그러나, 어찌알겟느냐. 나의 [illegible] 放逐한 그生命을 救援하게되엇슬뿐 [illegible] 나와 안해와 어린것들은 이 再生을어든 병아리를 사랑하기 아니다 [illegible] 그리하야 우리는 이 병아리에게 「鳳來」란 이름을 부처주엇다. 나는 農場에 나와서도 문득 우리鳳來를 생각하는일이 잇섯다. 또 鳳來가 보고시퍼서 도 일즉이 돌아가는일이 잇섯다. 안해도 젓먹이가티 鳳來의

우리와가티 먹고, 우리와가티 자고, 우리와가티 놀앗다. 鳳來는 日曜日의夕陽이면 우리와가티 뜰에서 놀고 저녁지난뒤 우리와가티 이야기하엿다. 내가 鳳이를 부르면 내게 달려와 어깨우에도 올라오고 어린것의 「鳳아 이리와」하고 마주부르면 그리로 [illegible] 날아가 어린것의 귀바퀴에 [illegible] 올려고 머리위로 올라가는것이다. 鳳이는 우리와가티 한에서 사랑을 밧엇다.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 한寵愛를 가젓섯다. 그것은 鳳이 고자는것은아니라 [illegible] 도망에서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그찌들더러게 [illegible] 기지 아니하엿다. 오 [illegible] 줄거이 그찌를 처주는것이엇다. 鳳來는 이가티 幸福된 옛날을 보내엇다.

告發文學의 正體

六月創作一人一評 — (四)

崔載瑞

文

金南天「美談」— 批判 —

金南天의 告發文學論도 어느듯 두살이되어 벌서 文壇常識의 한項目이되려고한다. 그러나 壇一部엔 告發文學論에 對한 疑惑의念이 아직도 사라지지안코 또 論者自身도 이問題에 對하야 좀더 論陣을 베풀必要가 잇지안흘까도 생각된다. 筆者自身도 이點에 關하얀 궁금증을 느끼는 한사람이여서 今年正月 某社學藝部主催座談會에서 몃가지 質問을 한일도잇스나 釋然치못한바잇섯다.

金君의 告發文學論이 그한모퉁이에 曖昧한點을 남기고잇는것은 告發의對象 — 卽告發을當하는者의 性質이 판연치못한까닭이엿다고 나는본다. 事實『少年行』이나 『춘수는 男便』이나 『處刑의 월』을 읽고나서 君의告發文學이란自己諷刺 乃至自嘲의文學이아닌가 생각한대도 그다지 無理하다곤 할수업슬터이다. 웨그러냐하면 이들作品에서 告發을當하는者는 너무도 作者自身에 近似하엿스니까.

그러나 君의告發文學은 決코 自己諷刺나

自

嘲에끄치는文學은 아닌듯시퍼진다. 그것을 가장 明瞭하게 보혀준作品은 今番의『美談』(『批判』六月號)이다. 勿論 告發文學이 決코偏狹한 재래리아늘에서 나오는 告白의文學이 아니라면 그告發이 自己自身에도 밋처야할것은當然한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本領을 나타내라면 역시 그對象을 社會에 求하여야할것이다.

告發은 그正當한 意味에잇서서 『他人의 缺陷 乃至 罪惡을暴露하고 그不實 乃至 不道德을非難하는行動』이니까.

『美談』은 『모랄·블르아스』에 對한 告發의 好個의作品이다. 階級第一主義를 못토—로 農民으로부터 自作農에까지 올르앗는 [illegible] 氏는 어떤사람이 어떤農을일혓던지 讓渡하고 同情하야 마지못할 美談의主人公이 다. 그러나 이點小作人의 惡德이 다름아닌 그自身의 著實第一主義가운데 胚胎되엿다는것은 무엇이나? 여기에 告發精神이 發揮되엿다는意義가잇다.

尊一에 이作者가

告

發의 포인트를『軌하늘에떠다가 금시에 땅에떠러지는 그런 아술아술한 空想』에 두엇다면 그作品은 아마도 告發文學으로선 失敗하얏슬것이다. 웨그러냐하면 그런種類의 人類의 虛榮心이란 過去의 教訓主義的 諷刺作家가 하도여러번 써먹은 레 — 마이니만큼새삼스럽게 告發云云도엇을 터이니까. 그러치안코 이作品의 主人公은『쇠술鐵脈』이나 하나 잡앗소?』하고 뭇는말에『머우리가는놈에게그러치不가잇나요』하고 表面으로는 嗇嗇히 對答하면서도 內面으로는 그날번 일원한장때문에『죽이든는』한 最後까지 着實한 人物이라 이러케 着實하던 이農民이 그着實때문에 그實은 조그마한 虛榮心때문에 다이나 마는에 四敗를 切斷되야 悲慘한 最後를 맛게 된다 자못 痛烈한告發이 되지안흘수 업다 여기까지 생각하야 오면 金南天의 告發文學은 諷刺文學과도 關聯이업지아라고 생각되다 웨그러나하면 그것은

動

機와程度의差異는 잇술망정 結局 같은意味의 諷刺文學가운데 包含되야 諷刺文學이란 人生의缺陷 乃至 愚劣을 [illegible] 하는데 [illegible] 일게다. 君이여어디로가려는가?

뒷골목 (四)

◇平壤雜記帖◇

金南天

萬壽臺

서울에 오래 떠나있다가 오면 평양은 진실로 낫설고 새롭다 [illegible] 最近에 移徙하엿스나 여쭐에게 나 新開文局에 무르면 월리라한 다. 「仁興里라면 箕林里와 隣接한 곳으로 公設運動場에서 피다」 前에 는사과밧이어서 荒漠한 곳이어서 그대로 「가루개」라는 娼妓村에 連接되어잇더니 數年來에 이곳에 文化住宅이 들어서고 아담한 小住宅이 짜고안처서 平壤有數의 住宅地가되엿다 移徙를 하얏더

래도 그附近이라면 마츰萬壽臺 가깝고 구경가는길에 들러 會도잇스니 하얏더니 정작 平壤 기便하리라하얏더니 [illegible] 내려서 어떤친구를맛나 무러보 매뜻밧게 倉田里라한다. 「倉田 里어데가?」했더니 「番地는이젓 네」만 포르원 金아무개네 邸宅 別莊일세。」한다。 金아 무개의 邸宅이라면 中學時代부터 우리 들의印象기픈建物이다。東京인가 어데가사는 돈만흔貴族의 別莊이 어떤것을 買受한것으로 七八年 前 고무工業이 熾烈한때에도입 에오른 洋屋二層의 이뿐집이

안녕기의 꼬를재롤빼고 옷맵시 를 가느지 못한채흔들거리고고 리봉지는 婦女子가 눈에띄엇다 그方面에 눈뜨지못한 少年의눈 에 이러케되엇스니 그程度를 미 처 집작할만한것이다 이번에는 딸을 세우고공욕을 걸어보앗스 나 그런빗치나타나지안흐니 이 附近의風紀는 肅淸되엇음가。

한때에 효석이 사는집뒤 밧 가운데는 찔러가잇서서 저녁머 고 散步가는길에 곳잘 이곳에 들려 활소는구경을 하엿섯다。 西편언덕으로 孤兒院이잇고 萬壽臺로 올라가는길가에 仁貞圖 書館과 紀念講堂이잇다。

十年前만해도 萬壽臺에는 멧 떨기의 老松과 노괴소는 行幸紀 念碑가 잇슬뿐이엇다。雜草옥어 진숙에 벌레소리들으며 우리는 少年의 滿溢한感傷의 蓄積을실 컷 이곳에다 기우려노흐며 밤 이 으슥함을 알지못하엿다。이 곳에오르면 平壤이 두눈안에들 엇다。낭떠러지아래로 공존이잇 고 그아래로 鐵路와 普通江의

다 이附近을 俗稱해서 포도원 이라한다。十年前만해도 한귀퉁 이에 葡萄園이 잇서서 포도원 의 出園를 집작할만하엿더니 지 금은 住宅이 꽉드리차서 옛날 의 모습을 차저볼길이업다。이 포도원에서 언덕을 넘어 市街 地로 호르는 一帶와 萬壽臺여프 로 얼마前까지 四五年前만해도 도장이 殷盛이라하야 所謂이자 자하던데 지금도 그러지 안그 런지 알수가업다。효석보고무럿 더니 自己는 이附近에 對하야 아무知識도업다한다。서울로이르 면 貞洞洞이랄까, 獨立門近傍이랄까 는 橋北町과도 비슷한곳인가。

어쨋든 所謂는근짜의 가장 跋 扈하는 地帶이다。도장이집을차 저가서 請求하면 所願대로 대 려다준다한다。擧骨가파수나 女 工이나 觀庭다니려오가난한색시 들이며 個中에는 現役女學生도 잇섯다고한다 나제이附近을 거 닐어도 公設水道들附近으로 밝

時節에 몸시 조와하엿다。西門 박 景昌里로나가서 普通門을꺼 고 西平壤잇는데까지 鐵路를조 차 江邊과 논가운데를 것는것 이다 지금이곳에와서도 그시절 을 回想한다 지금 萬壽臺우에 는 처량한風景代身에 測候所가 생기고 消防署가생기고 또다시平 南道廳의 新築이 들어선다。 멀리바라보매 아무데서나 눈 에띄이든 行幸紀念碑조차 눈에 들지안는다。어데 불이낫는가。 왁살스럽게 생긴 붉은自動車가 요란한소리로 귀를찟게하면서 몬 지를 휘날리고 달려내려온다。 車는 한臺, 두臺。風景은 限업 시 騷亂하다。

나는 이정록을거닐기를 少年

하야 메리야스 洋襪工場, 等等 의 大工場이 쭉늘어안저서, 그 것이 그대로 普通江을끼고 晋 通門送客亭지나 勞働者의中心 거리도 연달려잇다。

◇新刊紹介

▲批判 六月號 發行所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

漢詩募集

題 蓮花
押 春
限 六月十日

漢詩

題 梨花
押 香

桐岡考選

佳作之六

開城府觀月町六九八 黃鏞讚

時雨初晴麗日長·梨花素艶玉生光·始開庭院靑春暮·亂着枝條白雪香·何晏風流新傳粉·楊妃姿態淡成粧·書窓有客淸無寐·月色溶溶夜未央

▲四海公論 革新號六月號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

三六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國勢の伸展と學校 增設 東亞圖書發行所東京日本橋通三丁目 東洋書店 振替東京一六一七番 定價一圓

大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岐路 (一)

本報 當選作家短篇리레 —

金廷漢 作
崔根培 畵

이번에는 또 어떠한 운명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잇슬까? — 운파는 어린놈을 엎은채, 오두커니 먼하늘만 바라보며 생각 한다。아무리 막막한 언덕에서 얼다가도 걸어나마 어찌지 언 발에 오줌누기와가티 어설피엿 다。

그러나 그는 그런소리를 또한 짤하게끄내는것이 것사람 뵈기 도 쑥스러운터러 아모리 해 봤자부질업는 짓이라 그만 잠 잣고서잇는것이다。

두보도 물론 그저 멍멍하고 서서 멀뚱멀뚱 강물만 내려다 본다。

그들이 탄배는 그다지 크지

안흔 목선이므로 바람은 숨증 이라도 엇다금 물결따라 끼우 뚱 꺼우뚱하엿다。그럴적마다등 에 어편 일남이는 무슨 영문 인지 알배업고 마치 누가 부 리질이나 해주는듯이 엄마엄 마하면서 고사리가튼 손으로써 운파의 억개짬을 덤석덤석 거 머쥔다。전날어친 가랑잎은 어 마의 희색저고리가, 어느틋 그 의 꼬질꼬질비람에 구절스럽게 저젓다。

그배를 탄 맛은 손님들도마 처 모두운파나 두보와 가튼사 정으로 두메를 차저가는것처럼 아무도 서로 말이 업고 굔은 사공의 노질을 따라 배만이 흐 트게 흘러간다。

가을이 이미 반이나 지낫쉬라 강기슭에는 갈대꼿이 피여잇고 목매지 조으는 어떤뗘 솔게도 짝정 가을바람을실기는듯 호느 적호느적 장단을 굴어보다。군 데군데 나루시가에는 경성드문 하게 놓여선 포푸라나무에서도 라케 물든입사귀들이 나비떼가 티나붓겨펄어지고 그넘이 가득 히올라자리에는불행하는 마음안 아내의 무엇는 아기씨들이 그 득가려 흘러잇것다 그리고 그 들은 운파의 지나치게 해말쑥 한 얼굴을 집들에갓뀌온 눈으 로 웬봉투니 처다보앗다。

그리하야 가을해가 뉘엿뉘엿 서산마루에 걸려○때 그들은배

다。

운파는 속이 더욱 뒤숭레엿

여름 차려결엇스나 그 겉여괴 란것도 사람자체가 혼치안형든 탓인지 수크령 암크령이니 비 노리 왕바랭이 쫌은 발흘것도 엽고 하다못해 밥의밋삿개나 강 아지풀따위까지 꼬장꼬장 대구 릴 처들고 발길에 걸리기때문 에 도모지 말이못되게 힘이들 엇다。그래서 처에는 제법 난 척하게 떼놋는다는 밥씨가 갈 스룩 발길이 터덕거리게 되여 두보의 남은 구두코는 그만진 흙면은 메어기주둥이처럼 몬지 를 뒤집어쓰고 의은따 말숙하 든 옥양목 보선도다번에 꽤죄 죄하게 망해먹엇다。

겨다 어린것 까지가 두내외 자 차레로 밧귀가며 업는다던 는다 해줘도 양치업시 아모대 나 오줌을 내깔기고 서틀을 여 가어서 칭얼거리는통에는 저떼 바람이야 차돌도 햇스렷는, 등 풀에 진땀이 사못 주룩주룩 흘 럿다。

배에서부터 누럽든 오줌을오 래도록 참어오든 운파는 마츰 내 어런결 남편에게 뎃기고, 저쩍의 크다란 바위뒤로 돌아 갓다。거진 벌써, 인제 누가 내 놧는지 열렁나게 궁다란 멍어 리가 겁으스럼하게 말은채 울 사냥게 흉측하고 누어잇섯다。 운파는 다른일을 가리다 제일이 워낙 급한지라 그뿐 그거리 쪽

樂士童女의 藝術競爭

第二回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 九月中旬 …… **申請期日** …… 九月五日

曲目 ……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 Impromptu (即興曲) No. 4 (作曲九○) =(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一樂章=모-테

【譜表】 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參加資格 ……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申請한後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褒賞 …… 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종종賞을授與함

審査委員 …… 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現代朝鮮文學全集

隨筆紀行集

第四回配本

人生과文學에의最高典籍! 滿天下待望裡에今日發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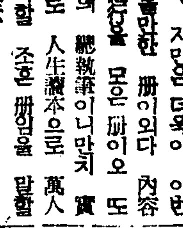
現代朝鮮文學全集은 回를 거듭할사록 滿天下讀者의 白熱的歡迎을 바더 임이 一回配本이 三版이出來하고 二回配本 三回配本도 再版이 거이 賣盡되여가는中이다。이제 다시 第四回配本으로「隨筆紀行集」이 滿天下待望裡에 今日부터 發賣케되엿다。이「隨筆紀行集」은斯界權威들의 最高力作을 蒐集하니만치 實로 人生과文學에의 最高典籍이다。五月의 菖蒲꽃가튼 華麗한 文章과 不朽의 寶訓 深奧한 內容은 萬人必讀의 人生讀本이오 文藝讀本이 안일수엽다

內容目次

金剛山紀行 (外三篇) 李光洙
春風千里 (外一篇) 安在鴻
石睥遊 (外三篇) 李殷相
落書 李泰俊
酒讚記 (外二篇) 金晋燮
筆耕舍記 (外一篇) 故沈熏
狂畵師 金東仁
그믐달 (外一篇) 故羅彬
半月城巡禮 (外二篇) 盧子泳
病院 (外四篇) 朴泰遠
懷鄕 (外二篇) 李源朝
我樂樓 (外一篇) 梁柱東
女人都 (外一篇) 李善熙
건네줄 (外一篇) 朴花城
고달픈女人 (外一篇) 金慈惠

大好評의 隨筆紀行集

萬人必備의好著　李鍾琇



이 貧弱한出版界에 貴社가 오로지 活躍하고잇는것은 매우 좋은일이외다。全集이 每月每月 꼭꼭 나오는 것두 기쁜일이지만은 이번四回配本으로 『隨筆紀行集』이 나오는것은 누구나 한번 좋아한 冊입니다。詩나、小說과 달리서 隨筆紀行은 이가장 普遍性이 기픈好著로써 文學讀本、人生讀本으로써 반드시읽어서 이사볼것으로 밋습니다。

最高의著　吳蘊皐

貴社에서 發行하는 文學全集은 實로 조흔 冊이외다 지만은 더욱이 이번 配本은 가장 隨筆과 紀行을 모은 冊이오 또는 斯界權威들의 總執筆이니만치 實로 文學讀本으로 人生讀本으로 萬人이 다 읽어야할 조흔 冊임을 말할수잇습니다 云云

一回配本 短篇集 (上) 三版大發賣中

二回配本 詩歌集 再版大發賣中

三回配本 短篇集 (中) 再版大發賣中

大集成、　廉尙燮

貴部發刊全集은 感謝히 拜領하얏사오며 體裁의 精美함과 印刷의 鮮明함은 于先 조흔印象을 주어 我出版界의 長足進步에 喫驚케하는 바 잇섯습니다。書內容에 잇서서 더욱 精選함 을따라 맛사옵거와 散逸되기쉬운 佳作을모아주어 朝鮮文學의 一集大成을 提供하여주심을 感謝하는바이다

朝鮮文壇의 榮譽　梁柱三

朝鮮文學全集은朝鮮文壇의 자랑이오 光明입니다 文壇에 關心이적은 사람두 한번 불만한 全集이오 따라서 朝鮮사람의 精神生活에 一大振作을주고 光明을주는 巨大한全集이외다。이런全集이 續出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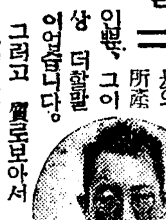
또는 完成되여야 朝鮮두 빗나는地域이되고 따라서 朝鮮도 世界와 억개를 나란이하여 굿센 行進을할것입니다。이제 第四回配本이나왓다니 기뿐일이외다。

劃時期的壯擧　韓雪野

收錄된 作品이 모두 그作家의 代表作이니 이한卷으로도 여러作家의面目을 알게되어 무엇보다 愉快하다。實로 좁은全集이라 생각하다 나는이 全集을 읽으면서 萬一 朝報出版部에 서 이런事業을 하지안엇든 樂을하면 우리 文人들의 作品은 大部分 一般 讀者에게 傳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엿다。左右間每月每달 나러게 나오는것은 매우 조흔일이다。

作者의말

散步의所産　金東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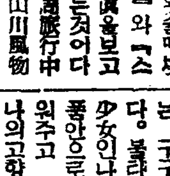
『狂畵師』는 어떤날의 散步의 所産입니다。그 이상 더할말이 업습니다。그리고 實로보아서 隨筆이라기보다 創作의部에 가까울것이라 봅니다。

埃及의旅愁　鄭寅燮

일즉 中學時代에世界地理와 西洋史를 배울때에埃及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寫眞을보고 無限히 感激햇든것이다 나는 歐亞一周旅行中에서 瑞西의山川風物에도끄바 만엿치마는 그것과는 別다른 意味에서 몌롭레 加大陸의 偉觀을가장 잘나내고 또한 牛萬의 久遠의歷史를 속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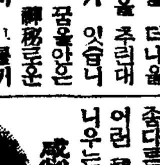
이는 埃及의『카이로市』附近을 踏眺할때 나는 며 探訪했든것이 寶로 다。나의 感激은 큰것이엇 子樹며 尖塔을 등 江邊의鄕 國回敎堂의 의沙漠에 노괴소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내 붓으로 敢히 그리기어 려우나 그러나 나의 느낀바 그대로를 적어 追憶의 一節로삼고저한것이다。

神秘로운꿈　朴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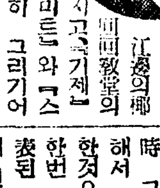
원낙 拙筆이니 그어느게를 더나을 理가 업스나 『그네의追憶』을 추린데는 구구하나마 이러한理由가 잇습니다。봄의 理想과 幸福과 착난한 꿈을안은 少女인나를 文學의 그윽한 神秘로운 꿈안으로 이끌어주고 그네를 내게 고흔 魂을 넣어준 R邑은 나의고향 以上 고향 입니다 거기서 지 내온三年의 歲 月은 나의 一生을 通하야서 의 가장화 려한 때임 니다。그러므로 그作品의 에 못멋업습 한도막을記

感傷的女人國　李善熙



이것은 어느新聞에 실혔던 소위 『映畵스토리』다 나는 그때 映畵이야기야 어찌됏든 나혼자 한 개의 女人의 나라를想像해서 써봣것인 데 — 읽은 사람이잇겟다 혹이 재미잇 다는 사람이잇겟다。나는 이에斷然용 기를내여 揷畵를 내여붓는다

特殊한文體　金晋燮



第四回配本 『隨筆紀行篇』에 저의隨筆 이 세篇은 모양이데 別無價値의 글이 라 未安하기 짝이업습니다 모도다그 時 그時의 注文에應 해서 奔 忙中에 한것으로 已往에 한번 式雜 誌上에發 表된 글입 니다 手中 에 잇든것을 選擇업시 드 리기는 드렷어도 再錄에 전달수잇는 글이라고는 到底히 생각할수업습니다。 그저 제가 筆者로써 一言할義務가반 드시 잇는것이라면 그것과 作風이 좀다른문의 그것과 달라는것일까요。 어런 種類의隨筆도잇다는것을單純히알 니우는데一例가될가 생각할뿐이외다。

懷鄕

錄한글이매 나는 『우리그네』를 주 렷스며 『山城의正午』는 그때여지 넘 칠듯한 感傷的의 哀愁를 가지고썻든 글인것을 記憶하기때문에 주렷습니다

全七卷

四六版三百六十餘頁　크로쓰豪華洋裝

定價 一圓二十錢 (書留送料廿二錢)

一時拂 七圓 (送料本社부담)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 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轉換期의基督教
注目되는밋숀會態度
廿三日부터平壤에서重大協議

【平南支社發】선교사들의 조직인 밋숀회의 금년도총회가 오는이십삼일부터 평양부 경창리(景昌里)서양인학교(西洋人學校)강당에서 열린다한다 기보한바어니와 이는 년로 밋숀회총유의 중대한 의의를가진총회로 최근 성하여 재래의서양적인 기독교에서 일본적인 기독교에로 급각도의 전환을하고잇는 현상에 조선내기독교가 황도정신에 각세에 여하히대처할것이나 하는 대하야 서양인선교사로써 어정 근본적인과제가 이총회에 걸리여잇는것은사실이다.

죽그들의심층을 살펴보면 그들도 조선기독교도가 국민정신을 고양하는데 대하여는 전자상내(上內)평남지사의 평양구내선교사 초대만찬회에서 그들이답사에서말한바와가티 당국의 정책에협(調)하려하나 오직 문제의 메인·푸인트인 신사참배에 대하여만은 그들로서는 한번다시 신중히 고려 하지안흘수 업다는것이 그들의 마음속이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여하에불구하고 조선기독교는 황도정신의 일로를 전진할것이니 그들이 그것에대하여 불만을표명하는경우에 아모로 그들과조선인기독교도와의 알력 마침이 큰문제이다. 그리고 이번총회에서는 전기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교육에대한 태도가논의될것이다 즉 그들은 이미 일반적방침으로는 교육을 기초로하는 선교방침을 포기하려하고잇는것은 평양삼교폐교 기타사실에뚜렷이나타나고잇거니와 이번대회에서는 부장로파계통의나머지각학교에대한 구체적태도를내정할것이고 더욱그들은 학교를 그만두는대신에 선교와전도의직접담당자가될목사、전도사를양성하는성경학원(聖經學院)、신학교(神學校)등에 일층주력하려고 하고잇스나·당국에서는 어듸까지 수기관에대하여도 아프로는 당당히 조선교육령에의한학교로써 정식인가를 맛도록하게되엿스니 어로인하여 이들수기관에서도 신사참배를비롯하여 황도정신에입각한교육이 베풀어지게될것으로 이에대한 그들선교사의태도가또한 주목되는것이다 또이번총회에서 결정될특이하고도 중요한 의안에 토지를중심으로한 그들재산의처분책(處分策)이잇다 그들의 재산은 방대한것으로 평양부내의 밋숀회와선교사 개인이가지고잇는 토지는 일반의예상이상으로 넓은것이니 이들이 이것을여하히 처분하려는가하는것은 기독교로써도 주목할만한것일뿐아니라 평양의토지이동에도 큰영향을미칠것이다

朱乙公設市場新築

【朱乙】주을은 함북에서 우수한 온천지로서 … 은 삼지방면에서 잡영운동을 개시하고잇서 수일내로폭바자가 확정될터이라한다

구하고 그시장이 협착하고 정돈이못되여 불편을 느끼든바 금번면당국에서 총공비어천사백여원을드려 지장구한정이만중등 시설과의 공설시장을 신축하고 우시장을이전하여시장구의를벌엿스므로 불편을주든한 불편은 일소하여 상인들에게 대단한 호감을주는바이나 그의정히설비가 업는은 아직유감이라고한다

道農務課動員
正條植을奬勵

【咸南支社發】함남에서는 이앙기(移秧)를 압두고서 각군에 정조식(正條植)의 적극장려를 지시하엿는데 금번 도농무과원을동원하야 각군에 파견하야 지도장려키로 되엿다

慶山地方에豪雨

【慶山】경북경산지방 일대에 지난이십구일오후 엿시경부터 비롯된 호우는 여섯시까지나 려 어서구점까지 계속되엿다 오월중에 이러한다량의강우는 근년의드믈엇이라고한다

干拓工事憑藉코
補助金만詐取
不正請負業者送局

【全南支社發】전남보성군 득양면(得粮面)송곡면수백여 만(寶城郡得粮面)의 소화오년오월에 대판시주길구(大阪市住吉區)사는 토목업자시천모(市川某)(六一)는(假名) 가간척(干拓)공사를 하기로되엿든바 그공사총경비 사백만원으로 십개년계속공사를 하기로이미 동공사는 진행중인데 총독부에서는 토지개량사업이라하야 예에 의하여보조금 신청으로보조금을명부지불하엿든바 명고옥시(名古屋市)에 사는진촌(津村)씨의 고발이잇서 소판보성경찰서에서는 그간엄밀히조사취조를 하엿는데 정상보조금 구십이만칠천오백여원에 불과한것으로공사비를 사실보다도 더만히기입하야 결국오십사만이천오백원을 더청구하야 사취한것이 나타나게되야 지난이십팔일에 공금사기협의죄명으로 장흥검사분국(長興檢事分局)에 송치하엿다

醴川小學校奬學會

【醴泉】경북예천 읍내에 잇는 예주심상소학교에서는 지난 이십팔일오후 한시부터 직원여명 에 메회하엿다 … 의 학부형과 내빈다수의 참석으로 동교강당에서 장학회(奬學會)정기총회를 개최하엿는데 동회회장김천조(金炫鎬)씨 사회로 무사히의사를진행종료하엿다

丸ナ米宣傳部隊
京阪神에十二名派遣

【鎭南浦】마르나국물협회에서는 마르나미합의시정조사와 마르나미개량상황보급선전을 목적으로 선전부대(宣傳部隊)원 십이명을 선발하여 일본내지 각지를 시찰코저 유월중순일 시찰단원일행이 출발키로 되엿다는바 시찰할곳은 아래와가다고하며 마르나미격하조지오등에도 만흔기대를 가지게 된다고한다

視察地 東京 橫濱 橫須賀 名古屋 京都 大阪 神戶 門司 下關 博多

金組長理事會開催

【牙山】충남 아산금융조합(牙山金融組合)에서는 지난오월삼십일 금융조합기념일을 기하여 당일오전십시부터 동조합평의원급 조장회를 조합두상에서 개최하고 이사천전(理事川畑)씨의 사회로 조합기념일선전 저축장려 연체대부금정리 신가입자조정등에 여러가지를 협의하고동일오후삼시경에 폐회하엿다고한다

馬山에벌써洪水亂
百餘戶浸水騷動
埋築地의排水不良으로

【馬山】지난이십구일밤부터 경남일대를 습래한 호우(豪雨)로 말미암아각처에 피해가 만타고 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마산방면에는 이십구일오후네시까지 폭우가각처엽시와서 구 마산의행정(幸町)수정(壽町)의 민가일대는 지반(地盤)이 나즈므로 백여호가랑의 침수가옥이 잇섯는데부근일대는 마치화재장과가튼 대혼동을 이루엇는데 부근민이십여명은 오전야경시부청을 방문하야 이침수현장을 조사하야달라고 의뢰하엿는바 부토목계(府土木係)에서는 즉시계원을출동하야 그선후처치를 강구하는일방 등강부윤(藤江府尹) 비후내무과장(肥後內務課長)도 호우중에도 불구코 각방면에 궁하야 상세한 조사를하엿다 동지대는 벌써부터 문제시 하여오든 곳인데 현재의 중앙매축(中央埋築)이 전기부근민가보다 지반(地盤)이 노흠뿐아니라 심지어배수구(排水溝)가한곳뿐임으로 완전한 배수(排水)가 되지안함으로 이와가튼 침수소동이 일어난모양인데 현재제일답절(第一踏切)의 부근으로부터 매축지(埋築地)의 배수구(排水溝)로내려가고 잇는 적은내가잇는데 이적은내로부터서는 정수장(淨水場)부근일대민가의 우수(雨水)는 전부이적은내로모여서 내려가게됨으로 매축지부근에와서는 범람(氾濫)치안흘수가업게됨으로 종속히배수구(排水溝)를 증설하는동시에이적은내를 현재의배수구(排水溝)에들이지말고 그냥직선으로바다로내려가게할것이 급무이고 이와동시에 현재의배수구(排水溝)를 준설(浚渫)하면 완전치는못할망정 현재와가튼 침수소동은 업스리라고한다

財產讓渡電請에
米國本部無消息
念慮되는信聖校前途

【宣川】선천 신성학교(信聖學校)이사회하기정기총회는 삼십일일 오후세시부터 신성학교회의실에서 루-드씨 훈석으로이사십일인이 모여 개회하엿다 각부 보고와 학교사무에대한 보고가잇고 세입 이만사천팔백오십팔원이십일전의 결산보고가잇슨다음 마즈막으로 미국전도본부에 재산전부의 양도를 전보로 청원한후 아모런 소식이업슴으로 다시 재축의 강미청원을 하기로하엿다

요컨대 전도본부의 회홍여하는 신성학교확립기초에잇서서 가장큰관계를 가지고잇는 현편으로회교운해방침에잇서서 소극적 현상유지책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지 모른다 현실상태에 비추어보아 일대비약적응지를 발내여파거의 난관극점을 면는동시에세인의 바라는 찬연의 대시성을 재건함에는 여기에잇대회기적수습이 업서서는 안될러로갑보간 작정이 신성학교운명에큰영쇠를 가지고잇다 전번 전보청원후 느저도 금일 이사회까지에는 회홍이잇슬것을 미덧스나 아모런소식이업슴에 중대에 초조한 이사들은하다시거듭청원의편지를 떠우기로된바 금후회답은 오는유월이십사일 평양에서열리는 미숀회 총회까지에는 올것으로 예상하는바로 그내용여하가 일반의 큰관심처가되여잇다

釜山商工會議員
七月一日選擧

【慶南支社發】부산 상공업자들의총본영인 부산상공회의소 의원(釜山商工會議所議員)총개선은 오는칠월일일에 시행하기로 되엿는데 유권자 열람은 일일부터 칠일까지 일주일간 부산상공회의소에서에 하기로되엿고유권자총수가 일천오백사명으로그중 이백구십오명이 조선인이라고한다 그리고 선거할의원정원

終熄不知의豚疫
三水郡에서豊山郡으로蔓延
住民은防疫實施苦待

【咸南支社發】삼수군회린면(三水郡會麟面)의 도야지 호역은 그후에도 계속하야 만연하고잇는데 삼십일일도위생과에 들어온 보고를보면 그리되는 다시 인접한 풍산군 천남면 중장리(豊山郡天南面中庄里)에 전염되야 벌써 그동리에서 병에걸린도야지가 삼십두나발생되얏다 목하 부민들은 예방주사약의 도착을 갈망하고잇는데 전호수은 도야지는 이백십여두의 다수로 화전민들은 일대공황중에잇다

偽造證明書로
渡航타가發覺

【慶南支社發】경남밀양군 무안면 양호리(密陽郡武安面良孝里) 이원효(李元孝)(二五)는도항하기위하야 복강현 구류미시 일길정(福岡縣久留米市日吉町)복산식당(福山食堂)에잇는장남언수(彦壽)에게 그수속을 부탁하엿스나부조의능할이업다는 이유로도항증명을 못엇게되엿스므로 지난삼월에 대판시 동성천구 (大阪市東淀川區)모요리점칠후으로 잇는지모(池某)가 대판서일시귀향하엿다는 소문을듣고 그를차저가서 그의증명서를 모사(模寫)하야판할자도경찰서(東島警察署)의인장을 위조날인한후 일시귀향인것가티 꾸미여가지고 자기는도항치도안코밀양군 청도면 소대리(密陽郡淸道面小臺里)유배구십팔번지김의업(金義業)(二七)에게삼원을 받고 팔엇든바 전기김의업은 그정월일고 삼십일밤 부산잔교 내지도항사무소(內地渡航事務所)를 통과하려다가 수상서원에게 발각되여 직시 유치추조중인데 수상서의 수배로 전기지(池)모도 밀양에서 체포하엿다한다

井邑强盜致死犯
覆審도死刑求刑
言渡는오는五日

【慶北支社發】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사형판결을밧고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여왓든 강도치사범인정읍전북정읍(全北井邑)에두고전주부노송정(全州府老松町) 칠십칠번지현주월군 노복래(盧福來)(二八)에대한제이심공판이지난삼십일대구복심법원제이호법정에서백무(百武)재판장주심과 좌등(佐藤)검사관여로 개정심리되엿든바 마친내 검사로부터일심과가티 사형의 구형이잇고 이우익(李愚益)변호사의변론이잇섯다 그런데 언도는오는오일이라고한다

범죄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전기피고는 모히중독관계로 루차처형된후 다시절도죄로 삼차나복역까지한후 출옥하야 망산노동자로 전전하든중 지난십삼년일월이십이일 오후팔시반경정읍군 봉남면신흥리(鳳南面新興里)에잇는 동정덕마(筒井德馬)집에 침입하여 그장자 동정등(筒井登)(一三)을 곤봉과식도로무타자상하여 빈사의 중상을입피여그이일 피해자는 절명하엿든것이라고한다

微微한治道實績
咸南道內道路의三分之一은
改修와再改修가緊急

【咸南支社發】함남도의 도로망의총비는 이제새삼스러히 말할배아니어니와 작년도까지 근십여년동안이나 예의치도(治道)에 주력하야왓스나 그래도 아래와가튼 한심한수자를 보인다 금년사월말현재의 도로파의등계를보면 현재도내 일이삼등도로의 총연장은 삼천구백십키로구백륙십삼미돌으로서 그중에 미개수(未改修)가 칠백팔십구키로팔백오십구미돌 재개수(再改修)를 요하는것이 삼백륙십일키로이백팔미돌로 중합하면 일천일백오십키로팔백륙십칠미돌로 이제 각등급의 개수상황을보면 다음과가다

	延長	未改修	再改修
	粁	粁	粁
一等線	四四〇、八四〇	一一一、一七	七一、三六三
二等線	一三八〇、一五〇	一三一、八〇〇	六九、一三九
三等線	二〇八九、九七〇	二六八、五七一	二六〇、四九〇
計	三九一〇、九六三	七八九、八五九	三六一、二〇八

降雨로農作憂慮

【海州】면작(棉作)을비롯하야조(粟)콩(大豆)보리 피변등 황해도의농작물은 지난번 단비로쌉아와석유이 실로조와서 농가로하여금 기쁨에 뛰게하엿는데요지음에이르러 연일 비가계속적으로내리여 정도에지나치게 우량(雨量)이만어 현재로의 래상는 그성육이 우려되고잇다한다

揮發油同業組合
五道業者들이結成

【慶南支社發】경상남북도와전라남북도와 강원도등다섯도내에산재한 휘발유(揮發油)판매업자들은국책에순응하야동업조합을조직하고저여러가지로준비중이든바지난삼십일오후한시부터부산철도회관(釜山鐵道會館)에서전기다섯도내의동업자 이십삼명이회합하고남조선휘발유동업조합(南朝鮮揮發油同業組合)을 조직하엿다고한다

城津市民運動會

【城津】신록이 무르녹은 첫여름을마지하야 성진(城津)에서는 예년행사로 오는칠일(목)오후양일간당지 욱소학교(旭小學校)교정에서 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한다는바 경기종목은 육상 각희、추천、자전차 경기등으로대회역원은 다음과 가다고한다

會長 柳緖夏 副會長 李化善 競技部長 金泰亨 庶務係長 李重宋 記錄係長 金君植 接待係長 崔泰完 陸上係長 金國輪 自轉車係長 李藤植 鄭戴係長 徐有奉 鞦韆係長 羅炳善 藝號係長 金泰均 設備係長 朴永華 顧問 鄭斗益 李根榮 以上

美貌의두女僧이
婦女들께서騙財

【咸南支社發】함남도 경찰부에서는 지난삼십일에 이인조의금품사기를하면서 도라다니는 미모의 두여승(女僧)의 탐사를전하에 수배하얏는데 그들은 함남정평군 회희사(歡喜寺)에 승적을 두엇다고 칭하는 미모의 여승 김룡화(金龍化)(二七)와 한명으로 북조선일대 길주(吉州)등지를 도라다니면서 우매한촌부녀를 속여서 불공(佛供)이란 명목으로 금품다수를 사취하엿다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110】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 (七十八)

「오늘식전에 내가 볼일이잇서서 문안에를 들어가는데 서대문안에서 포교들이 기찰을 하두 어마어마하게 하기에나는 문안에 무슨 큰일이 난줄 알엇드니 포청속네 잘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봣즉 달은 별일은 업구 청석골대장 임꺽정이가 서울안에 와 파뭇처 잇단 소문이 잇다나 그래서 어제 저녁때부터 좌우포청 포교들이 임꺽정이 종적을 알려구 나와서 발동을한답디다 그러나 종적을알면 무엇하겟소 임꺽정이가리 귀신 꿈꺼먹을 친구가 그리케 어리무던하게 포교손에 잡히겟소 요전에 장통방에 와엇든것을 절통가리 에워싸구두 잡지못하구 놋친주제들이 또 인제 잡으러가서 칼맛구 곤장맛구 그리쿠 그러치 별수잇겟소 그러컨 말이야기구 포교들이 개차대듯하는 판에 잡될가테면 경이니까 맥업시 붓잡아다닐까닭이잇습디까 불이나게 물러보구 바루 나오는데 나올때 기찰은 들어갈때 별떠 더 심합디다 못는말을 고분고분 대답해두 으를따먹거리구 쥐어박구 치구 차구 가진것을 다합듸다。 나올때는 무악재에두 포교들이 나와안저서 찰자루 걸머진 촌뜨기까지 열나절식 세워 놋코기를 나리구 보낸듸다 두분 예 다 아시다 시피 내가못생긴 정정이는 아니건만 오늘 문안에 한번 갓다오는데 섬년감이 감수햇소」

절흔사람의 수다스러운 말을 정상갑이가 다듯고나서 검말봉이를 돌아보며

「우리가 돌우 모래재 (무학재)에까지 갓든들 봉변할번햇구먼이요」

하고 말한다음에

「어떠케하면 조흘까요」

하고 물엇다 정상갑이는 꺽정이 세력에 눌리고 또 검마봉이 압해에 쥘려서 오기실흔것을 억지로 참고 오는길이라 핑계모가 조흐면 중노에서 돌아갈생각이 업지아니하얏다 검말봉이가 정상갑이의 못는말은 대답안코 연사도 아니만 절흔사람더러

「쇠입은 거지말아니요」

하고 못는데 말루 거년동이 얼러대는것과 가티 절흔사람이 정상갑이게로 갓가이가서 귓속말로 검마봉이를 누구냐고 못는듯 정상갑이가

「착갑 자네 연사엿줍게 철석골 길두령이실세」

하고 말하니 최가는

「정신좀차리렴니다 까불어자루어요」

하고 정상갑이에게 말대꾸한뒤 배웅소

「아가말은 섭언는말이 아닌니다 기작이 한밥두 여간섭하지안습니다」

하고 검말봉이의말을 대답하얏다 검말봉이가 어떤케하면조흠께 생각하느라고 눈알을 꿰프리고잇는중에

「임대장께서 파연 서울 와기섭니까」

하고 최가가 못는것을 검마봉이는 그러니 아니니 지말하기가 섭어서 고개를 한두번끄덕이엇다.

「문안에를 꽉 들어 가실라면 길을 돌아서 창의문으로 들어가보시지요 창의문에서두기찰은욕다지 물으지만 서대문가티 심하진 안흘듯하우 설혹 섬하드래두 무악재 한번은 비키지안습니까」

「동행이 여러시니까 서루 의논해서 작정하겟소」

그동안에 뒤에오든 서녀패가 멀직이 와서 길까에서 쉬면서 아페 동행들을 바라보고잇섯다。

「저기안저잇는 여러분두 다가튼 동행이십니까」

「그럿소」

「아이구 한두분두아니구 섭여분이 들어가시자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잇서야겟습니다」

「그러키에 서루 의논해봐야겟소」

「그럼 저는 들일보러 가겟습니다 이담에 또 뵙시요」

「그럽시다」

최가가 정상갑이와 최판돌이에게도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고 룩번이길로 휩개치며 갈뒤에 검말봉이가 정상갑이 최판돌이를 보고

「모래재를 넘지안쿠 돌아갈수잇겟지」

하고 물으니 정상갑이는 잠자코잇고 최판돌이는 선뜻

「잇다뿐이에요」

하고 대답한뒤

「여기서 연희궁(延禧宮)쪽으루 나려가다가 서강 삼개 가는길루 꺽겨서 공덕이를 가서고개하나 너므면 용산이구 용산서 강을 끼구들면 서빙고구 서빙고서 왕시미루 가면 고만 장수원 가는길이 나서지안습니까」

하고 서울길 잘아는것을 자랑하듯 이러케이러케 간다고지형을 손으로 꽁중에 그리기까지하얏다。

이때까지의梗槪

임꺽정의 소굴 청석골서 송악산 대왕당 굿에안직두놈과 두령여사람이 구경을갓다가 두령들이 술먹으려간사이에 알찌패들이 어식구들에게 야단을거려 싸움이되자 알찌패들은 어식구중에서 제일 나이점고 예쁜 황천왕동의 안해를 납치해갓다. 이리보틀 드른 두령들이 놀라 그알찌패를 차즈니 그때는 송도부도사의 아들과 문객들인데 송도부도사아들이 황천왕동의 안해를 늑욕하려고하는것을 배돌석의 돌팔매와 황천왕동의 환도로 위기일발에서 구해내면서 알찌패일행십여명을 중상과 경상을내인다음에 도사의 아들은 죽여버렷다. 대왕당굿판에서 살인나고 더구나 죽은사람이 송도부도사의 아들이라 송도군관이 포졸을하오자 이사면청송속에든 일행이 피신할계획이 업든차 마천서텬의 묘책으로 서울서온사랑의 근축에서 피신을하면서 청석골진방을정해서 임꺽정이가 청처 졸개를 거느리고와서 송도군관을 격파하엿스나 그뒤로는 조정에서 토포사를 내여 청석골의위험이 임각으로 더햇다 서림의 계책으로 소굴을여러곳에 준비해두는것이 조캣다고해서 평안도에 소굴을 만들려고 배돌석이가 가다가 봉산서 포교에게 보새이 들켜 하마트면 잡힐것을 구사일생으로 도라왓다。그보복으로 청석골서는 가짜 금부도사를 꾸며가지고 봉산으로 가서 봉산군수를 잡어오라고하엿스나 그것역시 실패로도라갓다。

그다음에는 꺽정이와 서림이 평양감사의 근친이라고 양반행세를꾸며가지고 황해도 일대의 군수들을 농락한일도잇섯는데 임꺽정이는 그동안 서울와서 소홍이란는 장통방 기생을 첩으로 정해노앗다. 그뒤 꺽정이가 이봉학이와 황천왕동이와 졸개를 다리고 서울와잇는동안 꺽정의 처의집에서 일을보는 노밤이란하인과 졸개 두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주정을하다가 포교에게 수상하게 보혀 포청으로잡혀갓다. 그무조에서 임꺽정이가 장통방 기생집에서 술을 먹고잇다는것이 드러나 좌포장이 군관을 풀어 기생집으로 내여보냇스나 재 접전도못하고 꺽정이 엄협과 이봉학의 화살에 군관이 다달어낫다。그리고 꺽정이는 이봉학이와 황천왕동이와 소홍이를 데리고 이전 팡부산으로 도라왓다。그러나 노밤의 구초로 다시 꺽정이의첩 김씨와 원씨가 자꾸가정으로 너머갓스므로 꺽정이는 이말을듯고 정우을 때옥하려고 지금 거사를 하는중이다。

百日咳에

コデス

먹기조코 効果一等

(定價二十錢부터)
(藥店에잇음니다)

東京 松岡三省堂藥房 大阪

本報蠶島支局
本局三八八六

卸目錄 要三錢切手

文房具·事務用品
在庫豊富大都賣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齋洞四○番
電光三七○番
振替京城16121番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各社レコード蓄音器
各種樂器

東洋樂器店

京城府樂園町一三八番
電話光化門六九三番
振替京城二八○八一番

土地家屋担保償付

營業項目
土地家屋擔保貸付
建築資金貸付
土地家屋賣買仲介
土地家屋鑑定評價
火災保險代理事務

創立 明治二十九年
資本金 壹千四百三十 十七萬五千圓
黃金町二丁目五五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電話本局 一二三 六八一
營業案內送呈

昭和의常識

宿醉의沈鬱한氣分을明朗케하는……

仁丹

生○器弱小者는

悲劇의主빠러곳처不幸을未然에防止하라

東京中野區城山町三六
東京眞空療法研究所

內職副業

現代社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府光化門通
電光二四七一番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 出願·審判·訴訟 專任辦理士

眼科 耳鼻咽喉科

(專門)

平壤府巡營里

南山醫院

醫師 金致九

(入院室完備)

樺太廳官營專賣品

補精腎氣強壯劑

海狗腎

朝鮮金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

風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하나이實風病에걸리기만하면그병으로해서一生을망치게되는것이다그러면風病은果然不治病인가하면決코不然하다何由오하면從來漢醫는이것을簡單히風이라고해서所謂治風한다는藥만을使用하엿고細菌을죽일지도못하엿든까닭으로萬에一이라도治癒된例가無한것이다治癒는姑捨하고적은效果도보지를못하엿다그러나本院은有名한殺菌劑特히細菌을溶解하는藥과喰菌하는細胞를增進하는補血劑를配合完成한有名治癩劑를發明하기에至하엿다

癩病根絕策研究所

回春藥院

壽石藥院

陸軍藥局方收載

淋病新藥

쓰요-루

本品은 陸軍藥局方에收載된 醫科大學臨海軍病院에서 採用되엿다

適應症 急性及慢性淋病、淋毒性膀胱炎、尿道炎、腎臟炎、一般泌尿器諸疾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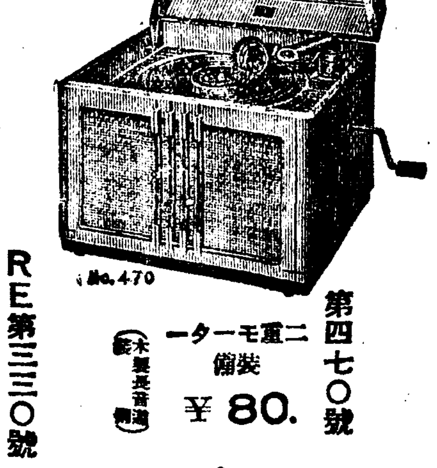
本品은 여러醫學博士가推賞하는高價藥을主劑로한가장強力한殺菌力을가저서 絕對로 胃腸障害를이르키잔코腎臟刺戟을誘發하잔는點에잇서서理想的治淋劑이다

ツヨール合資會社
本社 東京日本橋區江戶橋二丁目
支店 大阪東區伏見町二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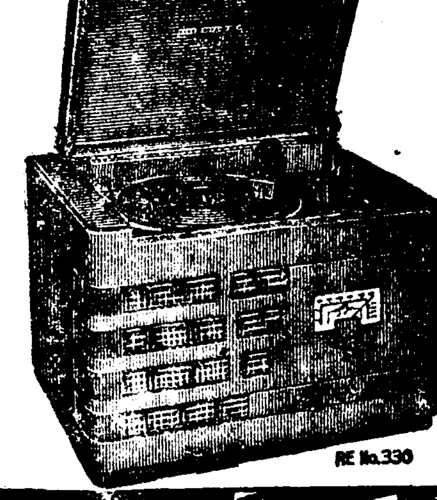
新發賣

買ってよかった!

사두어서 잘되엿다



第四七○號
二重モーター裝備
¥80.



Columbia

RE第三三○號
スーパー・ヘテロダイン五球式
ラヂオ兼用の最新銳電氣蓄音器
(マツダ真空管使用)
¥195.

新作品!

コロムビア蓄音器

ラヂオクラム
(ラヂオ電氣蓄音器)

製造發賣元 日本蓄音器商會

最近朝鮮의金融界消息

鮮銀金利政策 公債消化目標

鮮銀은 國債擔保의 割引利率을 日步一錢에서 一厘를引下하야 實施하엿는데 右는 公表利率로 實行金利는 相對方에依하야 相異하다고는하나 同業者에對한割引을目標로하야 이가티公表金利의 低率을 決定한것은 朝鮮의中央銀行인 鮮銀의金利政策으로서자못注目할만하다 即그目標를各地銀行의公債消化에두고 朝鮮內唯一한公債消化機關으로서의銀行이 이에依하야 公債投資에얼마라도有利케되는것은 戰時下의金融界로서는 重大義務의 一이다 此間의 事情을察知하야 鮮銀이 實行金利는 同期間에 金利低落을 確立한것은 時宜的이오 또效果的이라한다

小額紙幣와朝鮮 流通高僅少? 鮮銀當局의觀測

前議會에 通過한 臨時通貨法은 六月一日부터 實施되어 不遠間 小額紙幣와 新補助貨幣가 全國에 流通케될터인데 其中小額紙幣의 朝鮮流通에對하야 鮮銀當局의觀測은 如左하야 流通이만치안흐리라한다 即朝鮮內의 現在의 五十錢銀貨流通狀況은 十二月末을 最高로하고 夏季부터秋季에至하야 收縮되는것이普通이나 最近은鮮銀의回收가 一年을通하야 減少하고그만큼 五十錢銀貨의 流通이 膨脹되어잇다 이것은 內地가 一圓紙幣를 新規로發行치안코 모두五十錢銀貨에依하야 補하고잇스므로 自然五十錢銀貨의 朝鮮內에의 移流가만케된것인바 新小額紙幣의 新測込條地는적으리라한다

北支의鮮銀券 七千萬圓內外

北支의 鮮銀券은 中國準備銀行設立以來 漸次準備券으로박구게되엇는데 事實徐州를中心으로한 戰線의 擴大에依하야 軍票代用으로서의 發行이增加되어 現在의推算에依하면 鮮銀券의北支流通高는 約七千萬圓內外로보인다 그러나 最近의流通增加는新戰線方面의 需要이므로 北京、天津方面에서는 鮮銀券으로 박구움에依하야 流通이減少될것이나 當分間은 現在五千萬圓程度에不外하야 鮮銀券의 發行額은 그만큼 增加되고 그만큼 期키爲에는 北支의 通貨資金을 擴張하게된다 이에依하야 北支의 鮮銀券은 今後라도 相當히 流通膨脹되리라한다

中央集中 地方銀行遊資 金子殖銀理事談

殖銀理事 金子隆三氏는 朝鮮內 各支店業務를 視察코저 入京中인바 如左히말한다 殖銀의 上期分資金은 過般의 千五百萬圓起債로 準備가되고 一方 府債도 一千萬圓發行을하게되엇다 北鮮、西鮮、湖南의各店을 보고저왓다 來週부터北鮮에 가겟다 當面의 金融界는相當히 資金의餘裕가 잇다 今春狀況으로는 地方銀行에遊資가 잇섯스나 最近에는 拂込關係로中央에集中코잇다 從하야 어떤府債等도 相當한條件이 良好하엿더면 殖產債券도 必要하면

主要都市의府債 殖銀에서千萬圓引受

殖銀은 總督府當局과 昭和十二年度에 起債할 府債에 對하야 折衝中인데 京城府以下 五府의 府債合計 一千十二萬圓을 左記條件으로 引受키로決定하엿다

一、利率 年四分三厘五毛

二、二十年以來年次償還

그리고 이中에元山、光州、淸津의三府債二百萬圓은 貯銀이買入引受키로 決定되엇는데 各府의 起債額은 如左하다

釜山府債八五〇千圓▲京城府債(二日)六、四六六千圓▲平壤府債(二日)八八七千圓▲元山府債 一二三三千圓▲淸津府債一四三五千圓▲光州 三二一千圓

貯蓄、三府債引受

貯蓄銀行에서는 今春殖產債券의 三百萬圓引受를 行하고 朝鮮內 貯蓄資金의 產業資金化에 注目의 十二年 府債 引受에 엇서도 元山 淸津 光州의 三府分 約二百萬圓의 引受를 敢行하게되엇다 貯銀의 府債買入은 從來부터 行하야오섯스나 大口의것은 今回가 最初이오 貯銀의이 方面에의 進出은 極히 注目된다

愛國國債 六月十五日賣出

第三回事變國債는 來十五日부터 二十日까지 全國一齊히 賣出할터인데 朝鮮에서도同日부터全朝鮮各郵便局所에서 賣出할터로 額面은 前回의 五百圓、百圓、五十圓、二十五圓外에 千圓券을追加하고 國債의民衆化를圖하고저特히二十五圓券을增加하엿다 今回의 賣出枚數는 如左하다

千圓五十枚、五百圓百枚、百圓千八百枚、五十圓二千枚、二十五圓二千八百枚

事變、貯蓄債券 保管料金引下

郵便局所에서 取扱하는 公債及 社債의 保護預入及保管料金은 額面一枚에依하야 決定되는데 今回 事變國債에 限하야 額面金額의 如何에不拘코 一枚十錢 또貯蓄債券은 一枚五錢으로 그料金을 引下하야 六月一日부터 實施하엿다

朝郵傭船

朝郵에서는 北鮮、阪神間의 撒荷를 消化키爲하야 東隆丸(三六〇〇噸)을 傭船하엿다

「經濟省」創設有望

爲替、貿易兩政策一元化急務 池田新大臣에期待!

【東京電】大藏、商工兩省의機構改革을行하고 戰時經濟遂行을爲한 經濟省設立에 對하야서는民間에 그소리가 高하고政府部內에도 企畫院을비롯하야 各省內에서 論議되는데 今回內閣改造에依하야 池田成彬氏가 大藏商工兩相을 兼任키에至하야 再次論議되고同氏最近의 意向을보아도 그實現條件은 漸次爛熟해서서注目된다한다 大藏、商工兩省의 機構改革의 要點은 戰時下의 統制와物의經濟의 觀點에서 爲替管理貿易管理金融統制와集需生產力擴充及此等의 關聯點에잇는것으로 爲替政策과 貿易政策의 相衝은從來兩當局에서 銳意改善에 注力하여왓음에도不拘코 顯著히二元的으로 되엇섯스며 또此等의對外經濟關係와 國內生產力擴充과의關係等에엇서서도 一元化의必要가 絶叫되는바인데 池田新藏商이過去의 經歷과手腕을 活用하야各方面과 折衝한다면 그實現이決코困難한것은아니라한다

簡保限度 七百圓 十月一日實施

遞信省에서는 簡易生命保險本來의 使命에立脚하야簡易保險의 普及을圖키爲하야 保險金의限度現在의四百五十圓을 七百圓으로 引上키로決定하엿슴으로 朝鮮에서도 이에順應하야 七百圓으로 引上實施하기로 決定하엿는바 實施期는 內地와步調를가티하야 本年十月一日豫定이라한다

山田遞信局長談

民間會社側에서는 保險金額의 千圓內外가 契約口數의 大部分을占코잇는데 이點에對하야 民間會社에 恐怖를與하여서는아니되리라고생각한다 民間會社에는惡影響을 及케하지안흐리라는 斷定下에 內地에 順應하야 最高限度를七百圓으로 引上한것이다

"產業省"設置要望

政經研究會서活動開始

【大阪】政治經濟研究會에서는 五月廿八日午後二時부터 大阪俱樂部에 總務、財務委員會를열고 現下問題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如左히要望하게되엇는데 其具體的案文에對하야서는 六月二、三日頃 總會를열고 正式決定한後 各各政府에建議하기로되엿다

一、大藏(主稅局、主計局을除함)商工及農林의 三省을綜合하야 產業省을設置하고 擔當者에는 副總理格의人物을두어 時局에 關한 國策의 遂行을期할것

一、現下의物價問題에對하야서는 輸出貿易의 振興、『인플레』防止、國民生活安定、生產力擴充 物資需給調整等產業經濟의强化가 急務이므로 이것을 綜合的으로 調查研究하야 解決을 圖할것

一、戰時經濟及 政治의圓滑한遂行을期키爲하야 現下情勢에 適合한官吏制度의改革을 斷行할것

一、人的資源의培養補給을 圖하기爲하야 綜合的文化研究、資源開發、發明發見에關한 國際的機關을設置하는同時에 工業敎育施設을 擴大할것

一、日滿支五個年計畫을 長期戰에適應케하기爲하야 綜合的으로 再檢討할것

輸出振興應急策

原料輸入許可緩和 民間五團體에서建議

【東京】當面의 重要問題인 輸出貿易振興方策에 關하야 經濟團體聯盟、輸出組合中央會、工業組合中央會、商業組合中央會、全日本貿易聯盟會의 民間關係五團體에서는 商工大臣의 諮問에應하야 貿易懇談會를 組織하고去月十四日以來 審議한結果 그結論을 어더스므로 五月三十日大藏省으로 池田兼任商相을 訪問하고 建議書를手交、詳細說明하고急速實施를 要望한바 建議書의全貌는 十四項目으로써 輸出許可及爲替許可事務의一元化、輸出製品의 原價昻騰防止 特히 輸出振興의 原動力附與를爲한 原料輸入許可의 斷行을强調한點이 注目된다한다

朝鮮農會强化

機構를擴大 調查會設置키로決定

朝鮮農會에서는 五月三十一日臨時總會에서 肥料의 緊急動議를採擇하야 農會機構의 擴大强化에關한 調查委員會를 新設키로 決定하고 右委員長에林農會長을 推薦하엿는데 同會의 機能新調整이 問題되는이때 右調查會의 新設은極히 注目된다 이調查會의結成은 朝鮮農會自體의側으로보드래도 同會의事業內容은 朝鮮內農業界의 發展에 伴하야 그指導機關인同時에 購買販賣機關인바 最近에는 單純한購買販賣에서 離脫하야加工兼營의 肥料配給、保險色彩가 濃厚한 家畜再共濟制等에 進出키爲하야 業務는極히 複雜多岐로되고 그擴張面도 擴大되엇스며 右農會事業의 躍進에 適合한 朝鮮農會機構의 再檢討要求에 基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朝鮮產業界의 問題로서 볼때는 金組、產組와의 關聯、農振과의 關係가 相糾하야 만흔問題가孕胎되어잇다 調查會의 結成機構를 中心으로한 採合이 繼續될것이니가 생각되는點도 不無하다 에 就하야서는林會長에게 一任키로되어不日中具體化하리라한다

朝鮮의物價對策

內地에追隨統制 委員會設置코審議

朝鮮의 物價對策에 就하야서는 殖產局商工課에서 研究中인데 內地의實績을보고後에 具體案을 決定케될모양이다 朝鮮의物價는 朝鮮獨自의 立場에서 對策을 講究하야도 조흘것과內地와 步調를 合하야할것으로 二大別될터인데 物價對策을 必要로하는 重要物資는 大部分이內地製造品或은 內地市場과 密接한關聯이잇는것임으로 朝鮮產乃至朝鮮獨自의 立場에서 對策을 講究할수잇는것은 極少하야거의 업다해도 過言이아니다 從하야 朝鮮의 物價對策으로서는 어듸까지던지 內地와 協調를保持하여야할 關係가잇는데 內地의過去實績은 대단히 조치못하야現在商工省에서는 物價對策委員會를 設하고 再檢討를 加하는狀態임으로 總督府에서는 이實績을본後에 朝鮮으로서의 具體案을 研究할터인데 大體內地의法的統制를 朝鮮에도 移하야 商工省의 例에倣하야 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審議하게될모양이라한다

總督府職員에게 貿易事務囑託

滿洲北中支서活動

朝鮮貿易協會는 創立當初對滿輸出貿易의 振興을當面目的으로 要地에支部、出張所를 增設하外에 既設支部、出張所를 擴充하야 機構의改革陣容의刷新을 圖하기로 되엇는데 總督府에서는 特히奉天、新京、哈爾賓、牡丹江、大連、天津、北京、靑島、上海의 支部出張所主任職員에 對해서는 總督府의貿易에關한 事務를 囑託하야 本格的事業의 助長을하기로되엇다

株式 高寄後反弛

前場頭重

昨日配當落後의 堅調를 보인다음 今朝의外電은 株式의低調裡에도 底堅이나 米棉의落潮는 滔滔하야 依然米國景氣에는 疑訝의 念을가지게하나 內閣改造以後의 人氣는 자못底强하야 押目은 못가지 買하려는傾向에잇서 今朝寄付는 東新一圓五高、鐘紡一圓二高로 堅强하엿다 그러나그後買物不續으로伸惱反弛로 閑散이다가 結局東新百四十九圓二、鐘紡二百四十九圓二에 大引되다

後場下押

後場는 東新一圓低 鐘紡一圓一低로 反弛寄付後 保勢이다가 止際에東新、鐘紡이 다시七圓臺로低落하야 不勢이엇다

今日의市勢(卅一日)

關門爭奪揉合

五月도지나고 六月新甫를 마지하엿는데 新甫의 堅調狀으로 보아서는 前途를暗示하는것도갓고 維新政府의 關稅引下는 內閣改造以後의 輸出貿易增進策의 積極化와 相俟하야 今後의 輸出振興을 期待할수잇슬것으로豫想되고 戰局의進步으로 將政權의 內部的動搖는 想像以上인모양이어서 或은 事變終了期도意外로 速할것이 아닌가하는 臆測도 盛行하야 漸次 買氣傾向을誘致해서 市勢는 容易히 低價를 不許하는 底强狀이나 尙今도 伸力은 遲遲하야 그彈力性을 發揮하지못하고 頭重伸惱狀을 보하고잇서서 다시어떤 有力한動機에 接하지안코는 容易히 上放도못할形勢에잇다 어려한點을 생각하면 統制强化의不可避와함께 積極買도 尙早로當分은 東新百五十圓關門爭奪戰을 中心으로한 採合이繼續될것이아닌가생각되는點도 不無하다

依然氣迷商情

環境의 安定、政局不安의 解消 外交關係의 沈靜等으로周圍에 何等不安視할 條件이보이지안흠에따라 人氣는漸次買에傾倒하야 東敢兩地의 取組는 稀有의上襲下長을 보이고잇는데 어것은 昨日指摘한바와가티 반드시 小口買地場賣로된것은 아니라하더라도 過度한下長은 結局一般의買募傾向을 表示하는것에 틀림업는 同時에 有力買方도 萬에 達하는正株引受로 相當한 負擔이되어 이以上여기서 다시買進할餘地가 잇슬는지 疑問視되고잇스므로 萬若여기에서 上放이不可能하야 구물거리고잇다가 或은惡材料를만나 다시한번 賣叩될것이아닌가 하는念慮도업지안타。어런意味로는 우으로東

市場六感

(株)……昨日의 配當落으로示現한低價도 人氣堅强으로 買理코▲今日新甫도 堅强하야 寶會엿스나▲高寄만하엿슬뿐 買氣으로는 場面閑散에 市勢도 停頓▲오랜동안 低價의波瀾으로 鍛鍊도 되엇다면되엇고 環境도 平穩하니 한번高價를 示現할수도한場面이나▲이局面에서 高價上拔을 못하고 구물거리는것은 그리조흔現象이 아닌듯▲大衆의 買募와 取組의 極端한下長으로 或은嫌氣 더나지안흘는지?▲今後의統制一元化 輸出增進策의 期待、維新政府關稅引下等等 好材도 非一非再니▲有力한 動機를보

(米)……今朝는雨天이저 新甫까지는 벌써 手의沈默이 繼續되다▲새타리分岐를 기달려 이에 追隨할만한지모할것가타서 當分靜望도無妨?▲八限이誕生하야幾分軟調▲當限은 正米의三十一圓四十錢인 昨日同限의 市勢연과相映하야 錢蓋 先限은十錢高로低落▲當地의場面으로 보아서는아무리 弱派가 作戰한다할지라도▲南鮮은벌써水氣소리가 中 또 又一瞬의低落은 難免일듯▲秋에 一滴千金이라할수잇스나 아직漣漣한 天災期에어데不自然한現象은 엄으켜지 누라서 確保하랴?

家弓取引店開業

劉君星取引店은 六月一日로써 廢業하기로되고 同店의支配人으로잇든 家弓矢一郎氏가 이를引繼하야 六月一日부터 開業하기로되엇다

一、代表者 家弓矢一郎

一、商號 ㉠

一、會員番號 二十一番

國債少返

【東京電話】市況 前日軟調의뒤를바다甲號、乙號는依然閑散한 場面을 示하고 前日比二厘高、佛貨十錢高로 示하엿다 目前도金融事情의 變化는 豫想되지안허 아직 保合圈內의 小高下를 反覆할것이아닌가觀測된다 ▲佛貨四分九八二〇 ▲米五分半一九七九〇

福井人絹證據金引上

【福井電話通】福井人絹市場에서는 三十日評議委員會를 開催하고 左의二項을 附議可決하엿다

一、賣買本證據金은 一枚에對하야 十圓(從來八圓)으로함

二、六月二日은 氏神祭禮로 後場休會

八限見는誕生 本舞臺에登場

今朝八限見는 誕生하야 天災戰의 本舞臺에 登場하게되엇다 今後 어떠한 波瀾을이르키여 今年의 天災戰史에 어떠한 記錄을 보일지 米界人氣는 이로부터 더욱더 緊張할모양이다 天災戰의 第一步를 踏出한七限은 發會後 約六十丁의 暴騰을 示하엿다가 反히 六十丁餘의低落으로 中限에入하엿다 此限의 發生한後 旱魃을 擔頭하던 朝鮮에 여러번 好雨를 齎來하야 遲作說을 傳하던 麥作은 엄마큼 恢復되어 反히 平年作說이 濃厚하고 아고로 移秧無難의樂觀을 高하든 一方 買惜하던 產地의出廻도 幾分增加되는 現象이다 그래서 七限은 벌써 天災戰을 目標로한 第一次의 行動을 한모양인데 八限의 前途는 어떠한 結果를 招來할는지?

期米 上鞘發會奔落

前場續軟

今朝는 雨天으로 阪地當限四圓八十四錢인 五丁高、中限四圓八十二錢인 四丁高로 新甫八月限은 三十四圓九十六錢인 十四丁上鞘로 發會되엇고 東京은 新甫三十五圓十五錢 中限보다의 僅히七丁上鞘이엇스며 當地는 當限一圓九十錢으로 三丁低 中은 二圓〇六錢인四二丁低落으로 新甫八月限은 三十二圓二十八錢인 二十二丁上鞘로 發會되엇다 其後阪地稍漸低落移로 八節八十五錢까지의 低落을 伴하야 七節十九錢으로 金太店을中心으로한 某有力側賣는 新甫에까지 戰線을 延長하야 賣叩不意하는모양이어서 結局阪止八十八錢을보고十五錢에止揚하다

後場二圓割

後場은 三十二圓七錢연 八丁低로 始騰한 後 二節〇一錢으로 三節에드디어 三十二圓臺를割로 三十一圓九十九錢 四節九十八錢을 示하엿다가 다시二圓丁을 보엿스나 市勢는 惡化되엿다

正米 弱含裡區區

	先限	中限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下支

連日의降雨는마침내 惡雨가되여 處處에서 洪水化하야 出廻도 거의 杜絶될形便이어서 昨日急落의 後이요 此勢價位綱의 賣物薄으로 各地滿算의 一齊軟化로 微弱으로 市價는前價同樣으로 下支이엇다 ㊀二等三十一、四〇 四等三十一、三〇五 [illegible]

仁川不變

昨夜부터 天候不良하야 今朝에 豆야降雨로 產地로부터의 出廻가끈허지고 定期의 軟弱과 內地入荏物의 賣惡도 多少잇스나 一般으로快晴待人氣이어서 市中은大口側不動으로 市勢는 前價同樣이엇다 [illegible]

釜山弱含

實行不振閑散 奧地도 漸次軟化하자 市中은實物薄으로 [illegible]

大邱軟化

奧地實物薄에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單位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illegible]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朝鮮벌써霖雨

氣象學上의 候例로보아서 內地는 六月이 梅雨期요 朝鮮은 七月을 長霖期로하야 約一個月이 遲延되는데 今年은 朝鮮에 벌써 霖雨期에 入하는 모양이다 早春以來旱天을 繼續하야 朝鮮各地에 旱害가 不少하엿든바 昨今의 降雨는 可謂一滴千金이라 하지안흘수업스나 南鮮地方은 벌써 水害가 多大한모양이오 中部地方도 梅雨期를 形成하고잇다 移秧期에 直面한 今日의 現象으로보아서는 各地農村의 灌漑를 도앗스나 天氣의 循環으로보아서 移秧完了後의 旱魃이 엇슬지 未知이며 [illegible] 天災期가 漫然한今日에 天候의 順氣만에 安心하야 目前의 好料만 景氣하지못할것도 事實이다

東京서拔解合成立

【東京電話通】東京市場에서는 引後中限三五〇〇石先限四〇〇〇石合計七五〇〇石의 拔解合이成立되엇는데 賣方은丸尾요 買方은山井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反虎

近來에업는降雨로 用水가滾滾하야 도리어雨害方面은 洪水로서 移秧遲延說까지 加하야 秋田方面으로부터 朝鮮米에 人氣가相當히 活在하야 買氣 相遇關係가 恢復되면 곳人注가殺到하리라는說로 奧地一般은 賣物이 一滴하고 大日贈도 金融鈍 漫、先高를못까지믿고 買惜하는 風情으로 市勢五錢 反落되엇다 ㊀銀坊主三等三十一、六五 四等三一、四五 一等白米一、八〇

木浦膠着

連日雨天、洪水化하는 地方이니 마침내 處處에서 洪水化한 移秧遲延說까지 擡頭하야 買氣는 依然한 嚴緊으로 買物이 적고 各地期米의 新甫順鞘로 相當하나 天候回復待로 賣惜不振이여서 市勢는前價同條의 膠着이엇다 ㊀銀坊主三等三十、二〇 四等三一、八〇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illegible]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 [illegible]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株式 ◆朝取短期◆

	前	後	寄付	大引	高價	低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鮮主要取組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海外經濟(卅一日)

[illegible]

銀行券(卅一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京城物價(一日)

▲白米(叺、單位錢) [illegible] ▲麥粉(新二叺、單位錢) [illegible] ▲肥料(一〇貫、單位錢) [illegible] ▲紙物(單位連) [illegible] ▲石炭 [illegible] ▲石油 [illegible] ▲京城瓦斯 [illegible] ▲砂糖(百斤單位錢) [illegible] ▲鑛物(單位錢) [illegible] ▲海產物 [illegible] ▲染料 [illegible] ▲塗料(單位錢) [illegible] ▲木材(才、單位錢) [illegible] ▲本絹、人絹(疋、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皮百斤單位錢)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拜啓 時下新綠之節에 益益淸祥하심을仰祝하나이다 陳者小生이 朝鮮取引所證券米豆取引員劉君星商店支配人으로 多年愛顧를밧삽든바 主人과先輩各位의勸誘으로主人의業務一切을 繼承키로決意하옵고 先般取引員免許申請中이옵드니 本月二十七日附로써 免許가下附되엿삽기 來六月一日의 吉日을卜하와業務를繼承開業하옵고 顧客本位 信義誠實을信條로해서 一層愛顧에報答코저하나이다 아모쪼록前主人同樣倍前愛顧해주시옵기懇願하오며 失禮이오나不備禮 紙上으로써人事를드리나이다

昭和十三年五月三十日

證券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九

米豆部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

㉠ 家弓矢一郎

謹啓 陳者小生이今般弊店支配人家弓矢一郎君에게 證券米豆取引員의業務一切를讓渡하옵고斯界를隱退함에際하야는 後繼者家弓矢一郎君을小生보다 더욱愛顧하여주시옵기玆에 多年의愛顧를鳴謝하옵고 懇願하는바이옵니다 拜具

昭和十三年五月三十日

劉君星